

2025 경기도 공공언어개선사업

찾아가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

-
- 일시: 2025년 7월 28일(월) 10:00~17:10
 - 장소: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도움관 2층)
 - 주최: 경기도 문화정책과
 - 주관: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

찾아가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 프로그램

차시	내용	강사
1차시 (10:00~11:00)	말 한마디, 정책의 힘 - 공공언어의 개념과 요건 -	한은주 (국립국어원)
2차시 (11:00~12:00)	내 문서는 몇 점? 공문서 평가제도 바로 보기	신연수 (국립국어원)
12:00~13:00	점심시간	
3차시 (13:00~14:00)	알 듯 말 듯, 헛갈리는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김선화 (국립국어원)
4차시 (14:00~15:00)	자주 틀리는 문장 표현 교정하기	권우진 (국립국어원)
5차시 (15:00~16:00)	현직 기자가 전하는 보도자료 작성 실전 노하우	이경주 (서울신문)
6차시 (16:00~17:00)	쉽게, 바르게, 품격 있게! 보도자료 용어 다듬기	김선영 (국립국어원)
17:00~17:10	만족도 조사	

강사진 프로필

한은주

- 국립국어원 '찾아가는 과정' 강사
- 서울특별시 국어바르게쓰기 위원, 공공언어 책임 자문위원
- 국방부 국방라디오 국방광장 공공언어 패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찰청, 방위사업청,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강사

신연수

- 국립국어원 '찾아가는 과정' 강사
- 교육부 2022개정 초등 3-4학년군 국정도서 표기·표현 감수위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교과용도서 검정심의회 연구위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전문모니터

김선화

- 국립국어원 '찾아가는 과정' 강사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서울시민대학 강사

권우진

- 국립국어원 '찾아가는 과정' 강사
- 국립국어원, 한국교원대 언어소외계층 국어능력향상 프로그램 교육강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 문해교육 교과서 개발 감수위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자문위원

이경주

- 서울신문 부장(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산업부, 국제부, 워싱턴특파원)
- 서울신문 마케팅본부 ESG위원회 팀장
- 서울시 공무원 대상 공보, 서울신문 공보 아카데미 강의
- 저서: 『마흔 고전에게 인생을 묻다』(2013년, 글담), 『성장에 익숙한 삶과 결별하라』(2015년, 아날로그), 『무채색 아저씨 행복의 도구를 찾다』(2022년, 아날로그)

김선영

- 국립국어원 '찾아가는 과정' 강사
- 서울시 산하기관 찾아가는 공공언어 교육강사
-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공공언어, 한국과학창의재단 교과서, 문화재청, 고용노동위원회 등 감수위원 다수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고용노동교육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강사

목 차

- 말 한마디, 정책의 힘 - 공공언어의 개념과 요건 9
- 내 문서는 몇 점? 공문서 평가제도 바로 보기 31
- 알 듯 말 듯, 헛갈리는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46
- 자주 틀리는 문장 표현 교정하기 57
- 현직 기자가 전하는 보도자료 작성 실전 노하우 78
- 쉽게, 바르게, 품격 있게! 보도자료 용어 다듬기 104

2025 경기도 공공언어개선사업
찾아가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

공공언어의 요건과 말 다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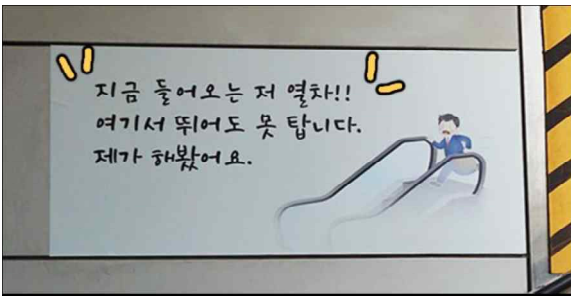
한은주(국립국어원)

5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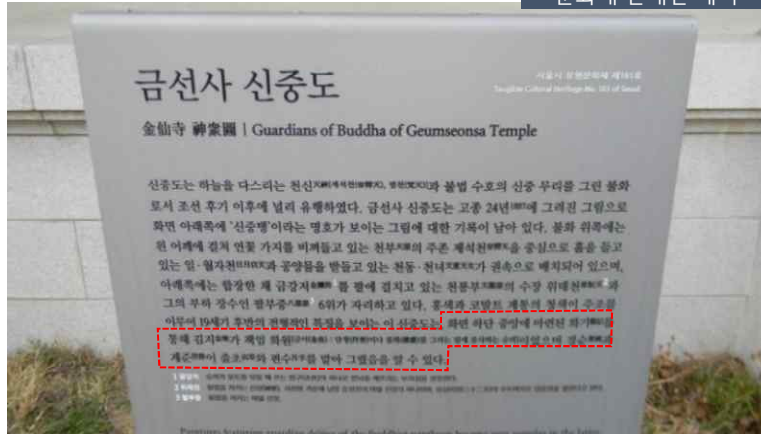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5월 15일이	28	29	30	31

●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표현 피하기



● 독자(국민) 입장에서 쓰기





화면 하단에 마련된 **화기**를 통해 김지(金地)가 책임 화원이었으며 경순(景純)과 계준(啓俊)이 **홍초와 편수**를 맡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아래쪽에 있는, **제작 과정을 적은 글**에서 김지가 책임 화원이었으며 경순과 계준이 **초안을 잡고 그림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제헌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오는 7월17일은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국기게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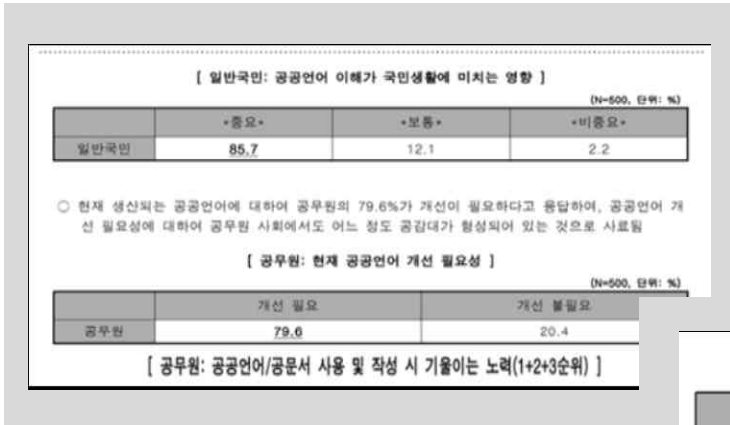
게양:
(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어 고시 (1997))
'게양' 대신 '달', '올림'으로 씁니다.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다는 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 입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심한 비·바람(약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약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려다가 다시 답니다.

□ 공공언어의 인식



[현재 공공언어 개선 필요 항목] (단위: %)

	일반국민 (N=500)	공무원 (N=500)
어려운 형식 용어	60.4	74.0
무분별한 외국어, 한자어	20.0	30.0
개조식 문장의 보고서(축약 포함)	11.5	33.4
고압, 차별적인 표현	7.9	23.6
기타	0.2	0.6

공공언어의 여러 정의

『우리말샘』
공공[^]언어(公共言語)

분야『언어』「001」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 각종 공문서, 대중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나 간판에 사용하는 언어, 계약서·약관·사용 설명서, 교양서적에 사용하는 언어, 대중을 상대로 강의할 때 사용하는 언어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시기	필자	정의
2010년 이전	김정수(2009)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성원을 상대한 언어.
	김세중(2010)	대중을 향해 쓰이는 언어.
	이인세(2009)	정무나 공공 기관이 사회 구성원인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정책 또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명, 설득, 규제를 목적으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언어.
	남영신(2009)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와 민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
	태린(2010)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
2010년 이후	민현식(2010)	공공의장에서 해당 업무자가 공공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해내는 일체의 구어와 문어.
	강남욱·박재원(2011)	개인이 사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일상 언어와 달리 공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를 통칭.
	김세중(2012)	개인들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언어 사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통틀어 일컫는 말.
	김형배(2013)	공공의장에서 해당 업무자가 공공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해내는 일체의 글(말)
	김미선·이지용(2018)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 업무자가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생산한 공문서에 사용하는 언어
	류성진(2019)	공공영역에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사용되는 언어로서 주로 구성원들의 사회적 삶과 활동에 적용되는 규정과 정보, 지식을 다룰 때 사용되는 언어.
	이건범(2020)	공공의 목적 아래 많은 이에게 두루 전해질 것을 전제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말.
	이기연(2021)	정무나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 볼 수 있음.
신수호(2021)	한국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언어	

「국어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5.>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21. 12. 16.]

인용 : 국어기본법(2021개정 전문)

「국어기본법」

② 일반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을 말한다. <개정 2021. 6. 15.>

① 한글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제목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1. 4. 14.]

[제목개정 2021. 6. 15.]

[시행일 : 2021. 12. 16.]

한글과 병기하는 외국 글자:

가. 단어를 병기하는 경우 한글의 오른쪽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쓰되, 병기할 때 줄이 바뀌게 되는 경우와 병기할 외국 글자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한글 아래에 쓸 수 있다.

나. 문장을 병기하는 경우 한글 문장이 끝나는 줄의 다음 줄에 한글 문장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부터 쓰되, 하나의 문장으로서 한 줄에 한글과 외국 글자를 모두 적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 문장의 오른쪽에 쓸 수 있다.

다. 한글과 병기하는 외국 글자의 크기는 한글보다 1pt 작게 하고, 글꼴 및 색상 등은 한글과 동일하게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 4. 14.>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이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 <신설 2017. 3. 21.>

-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인용 : 국어기본법(2017 개정 전문)

안전체험교육원, 가상현실(VR) 기기로 실감나는 안전체험 운영
 - 가상현실(VR) 기기 대여로 교실에서 효율적인 안전체험교육 진행 -



안전체험교육원, 가상현실(VR) 기기로 실감나는 안전체험 운영
 - 가상현실(VR) 기기 대여로 교실에서 효율적인 안전체험교육 진행 -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시행 2025. 1. 1.] [경기도조례 제8254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3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4. 가급적 도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신설 2020.7.15.]
5. 일계간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 [신설 2021.1.8.]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14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 또는 분임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제15조의2(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올바른 언어 사용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6.]



●우리말 다듬기=국어순화

국어를 다듬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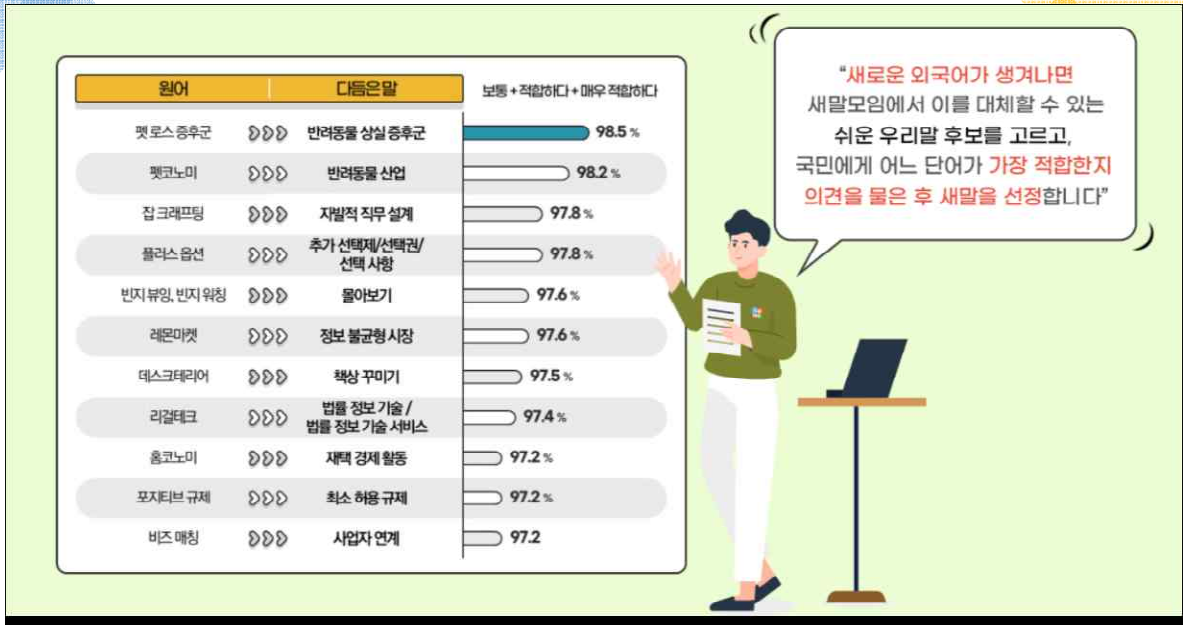
외래어·외국어를 가능한 쉽고 익숙한 말로

비속한 말을 고운말로

틀린 말을 표준어로 또는 맞춤법대로

바르게 쓰는 것 등





필수개선 행정용어 순화어100

외래어·외국어 50

외래어/외국어	다듬은 말	외래어/외국어	다듬은 말
거버넌스	민관 협력, 협치, 관리, 정책	오피니언 리더	여론 주도자, 여론 주도층
규제 프리존	규제 자유 구역, 규제 (대폭) 완화 지역, 무규제 지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각 처벌 제도, 즉시 퇴출제
규제 샌드박스	규제 유예 (제도)	이니셔티브	주도권, 선택권, 구상, 발의, 발의권
니즈	필요, 수요, 바람	제로화	원점화, 없애기, 뿌리 뽑기
데모데이	시연회, 시연일, 시범 행사(일), 사전 행사(일)	쿼터	한도량, 할당량
드론	무인기	클러스터	신학 협력 지구, 연합 지구, 협력 지구
라운드 테이블	원탁회의	리오프 회의	첫 회의, 첫 기획 회의
롤모델	본보기, 본보기상, 모범	태스크포스(T/F, TF)/태스크포스팀	특별팀, 전담팀, (특별) 전담 조직
리스크	위험, 손실 우려, 손해 우려	테스트 베드	시험장, 시험대, 시험무대, 기능터
마스터 플랜	총괄 계획, 기본 계획, 기본 설계	투트랙	양면, 두 길래

외래어/외국어	다듬은 말	외래어/외국어	다듬은 말
매뉴얼	지침, 설명서, 안내서	팬투어	홍보 여행, 초청 홍보 여행, 사전 답사 여행
매칭	연계, 연결, 대응	(...)몰	(...)후보군, (...)군, (...)명단
메가트렌드	대세, 거대 물결	허브	중심 중심지
모멘텀	(전환) 국면, (전환) 계기, 동인(動因)	AI	① 인공 지능 ② 초류 특감, 초류 인물루멘자
배우처	이용권	B2B/G2G	기업 간 (거래)/정부 간 (거래)
브라운백 미팅, 브라운백 세미나	도시락 강연회, 도시락 회의, 도시락 토론회	BI	브랜드 정체성
브로슈어	안내서, 소책자	G20	주요 20개국
세션	분과, 시간	ICT	정보 통신 기술
스크린도어	안전문	IoT	사물 인터넷
스타트업	창업 초기 기업, 새싹 기업	IR	기업 설명회, 기업 상담회
싱크 탱크	참모진, 참모 집단, 두뇌 집단	IT	정보 기술
아웃리치	현장 지원 활동, 현장 원조 활동, 거리 상담	MOU	업무 협약, 양해 각서
아카이브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자료 전산화, 기록 보관	Q2Q	온오프라인 연계,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온오프라인 연계 사업
액션 플랜	실행 계획	ODA	공적 개발 원조, 정부 개발 원조
어젠다	의제	R&D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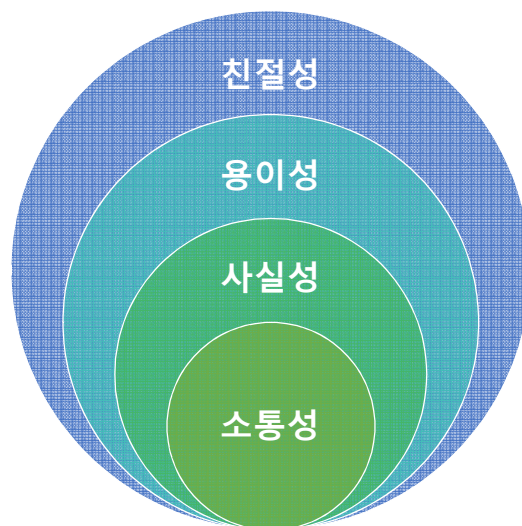
필수개선 행정용어 순화어100

한자어 50

한자어	다듬은 말	한자어	다듬은 말
가로	치로	수령 사례	모범 사례, 잘된 사례
가용하다, 가용한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수익사업	가격 협의
계산/계산하다/계산권	어림 계산, 대략 계산/ 어림잡아 계산하다, 대략 계산하다/ 어림 지급, 대략 계산 지급	시간장차	관련장차
가임/가임하다	올림, (도)늘림, 돌/돌리다, (도)늘이다, 들다	일도일수	주고반응, 넘겨주고 넘겨받음
계첩, 계원/계첩하다, 계첩하다	계시, 내뵈임, 내걸/계시하다, 내뵈이다, 내걸다	(아)스팸트(트) 발생	(아)스팸트(트) 군하기
간담	보기, 본, 본보기, 서식	어입 결의	화수 결정
계류/계류되다/계류 중	뒹임/뒹여 있다, 뒹이다/건도 중	예가	예정 가격
계리	최계차리	예산 지변 과목	예산 과목
균경간	균, 오늘내림, 오늘내림 사이	예청	이리 살피기
균변	이변	이격	받아짐, 별된, 떨어짐
균획	이변	익임/익일/익년	다음 날/다음 달/다음 해
내구 연한	사용 연한, 사용 가능 기간, 사용 가능 횟수	일부인	날짜 도장
내용 연수	사용 연한, 사용 가능 기간, 사용 가능 횟수	임석	(현장) 참석

한자어	다듬은 말	한자어	다듬은 말
단차	고차차, 높이 차이, 높낮이 (차이)	자동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
답해	그, 해당	적기	알맞은 시기, 제때, 재철
동년/동월/동일	같은 해/같은 달/같은 날	적의 조치/적의 조치하기 바람	적절한 조치/적절히 조치하기 바람
동법/동조/동향	같은 법/같은 조/같은 형	지득/지득하다	알, 알게 됨/알다, 알게 되다
물품 수불 대장	물품 출납 장부, 물품 출납 대장	차년도	다음 해, 다음 연도
별건	다른 건, 단 건	(기부 등) 채납/채납하다	(기부 등) 받음, 받기/받다, 받아들이다
부락	마을	첨두시	가장 높일 때, 수요가 최고일 때
불상의, 불상인	알 수 없는, 자세하지 않은	초도순시	첫 시찰, 첫 둘러보기
불시에	갑자기, 예고 없이	(경보, 사이렌 등) 취명/취명하다	(경보, 사이렌 등) 울림/울리다
불입/불입하다	납입, 납부, 낸/납입하다, 납부하다, 내다	(공무원증, 출입증 등) 패용/패용하다	(공무원증, 출입증 등) 달기/달다
불출/불출하다	내출, 공급, 지급/내주다, 공급하다, 지급하다	하구연	하구독
상료	성공적으로 마친, 성공적으로 끝남, 성대하게 마침	행선지	목적지

공공언어의 특성



□ 공공언어의 유형

시기	필자	정의
2010년 이전	김정수(2009)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성원을 상대한 언어
	김재홍(2010)	대중을 향해 쓰이는 언어
	이인제(2009)	장어나 공공 기관이 사회 구성원인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정책 또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선명, 설득, 규제를 목적으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언어
	남영선(2009)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와 민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김희(2010)	공의 영역과 사회 영역을 막연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민현석(2010)	공공의 용어나 공공 기관의 용어를 가칭인원으로 대상으로	

영역	유형	출현 형식
공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의 업무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유형1]	법률, 공문서, 관보, 고시문, 판결문, 명령서, 고지서, 보도자료, 안내문, 계시문, 표지판, 민원 서식, 증명서 등
	각급 학교의 교육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2]	교과서, 수업, 강의, 시험 문제 등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 지식의 대중적 전달에 사용하는 언어[유형3]	기사/보도, 논설, 칼럼, 지식/교양 등
	계약, 투자, 판매, 구매, 광고 등 민간 자원의 경제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유형4]	계약서, 약관, 견적서, 영수증, 상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 광고 홍보물 등
	학계, 산업계 등 전문 분야의 학술 및 연구·개발·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5]	강연, 발표, 토론, 회의, 논문, 전문서적 등
	방송, 공연 등을 통한 대중적 문화 예술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6]	드라마, 코미디, 예능/오락, 영화, 연극, 음악 등
사적	인터넷, 휴대전화 등 가상공간의 개인적 표현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유형 7]	개인 누리집, 블로그, 댓글,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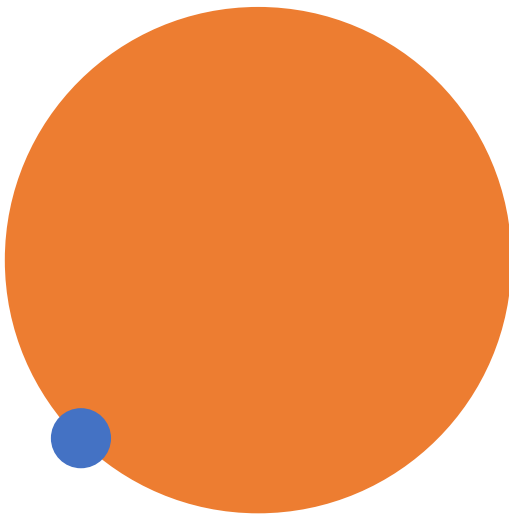
공공언어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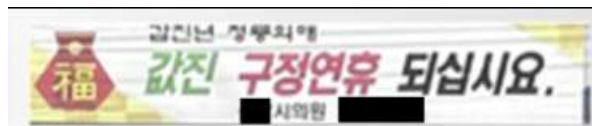
공공언어의 요건

영역	요소	항목
정확성	표기의 정확성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였는가?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였는가?
	표현의 정확성	어휘를 적절하게 선택하였는가?
		문장을 문법에 맞게 표현하였는가?
		단락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하였는가?
소통성	공공성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차별적 표현성, 지역, 인종, 장애 등을 삼갔는가?
	정보성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제시하였는가?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정보의 배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용이성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출처: 국립국어원,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 바르게 고쳐 볼까요?



문서의 작성 기준
-행정업무운영편람(2020), 41쪽-

오늘 날짜, 시간 써 보기

2025. 7. 28. (월) 09:30~14:30

2025. 7. 6.~7. 30.

'25.

경기도민 여러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금 신청하고 현금처럼 사용하세요

1차 7.21(월) ~ 9.12.(금), 전 국민 15~45만 원 우선 지급

2차 9.22.(월) ~ 10.31.(금), 전 국민 90% 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가. 숫자 등의 표시

1) 숫자(영 제7조제4항)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2) 날짜(영 제7조제5항)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한다. 월 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시1> 2021.12.12. (×) → 2021. 12. 12. (○) : 한 타 띄우고 표기

<예시2> 1985.09.06. (×) → 1985. 9. 6. (○) : '0'은 표기하지 않음

3) 시간(영 제7조제5항)

시·분은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예시> 오후 3시 20분(×) → 15:20(○), 오전 7시 9분(×) → 07:09(○)

4) 금액(규칙 제2조제2항)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삼일만삼천오백육십원)

2025. 7. 21. ~ 9. 12. (금)
2025. 9. 22. (월) ~ 10. 31. (금)

문장 부호 바르게 쓰기

연습 문제

[문제4] 다음 중 가운데점이 필요하지 않은 말을 고르시오.

- ① 군구(郡區) ② 시군구(市郡區) ③ 읍면동(邑面洞) ④ 읍면동장(邑面洞長)

• 가운데점(·)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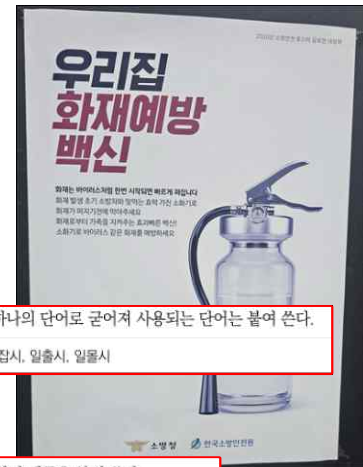
- 국·한문 → 국한문
- 국·공채 → 국공채
- 농·어민 → 농어민
- 농·어촌 → 농어촌
- 입·출고 → 입출고
- 군·경 → 군경(軍警)
- 선·후배 → 선후배
- 주·정차 → 주정차
- 냉·난방 → 냉난방
- 도·농 간 → 도농 간
- 민·관 → 민관(民官)
- 중·고생 → 중고생

☑ 한 단어로 굳어진 용어 목록

대상 용어	정비 용어	대상 용어	정비 용어
국·공립	국공립	인수·인계	인수인계
국내·외	국내외	임·직원	임직원
송·수신	송수신	천재·지변	천재지변
수·출입	수출입	총·포	총포
신·구	신구	출·입구	출입구, 출입문
어·패류	어패류	통·폐합	통폐합

띄어쓰기

- 안: 올해는 시행을 안하기로 결정했다. → 안 하기로
- 우리: 우리과에서는 → 우리 과에서는
- 측: 병원측에서 제시한 조건 → 병원 측
- 중: 공사 시행중에 일어난 사고 → 시행 중
- 시: 우천시에 상호 일정 조정을 통해 → 우천 시
- 간: 입주민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 입주민 간
- 이상: 65세이상 노인에게만 → 65세 이상
- 후: 실시후 보고할 것 → 실시 후
- 약: 약40개소에 이를 것 → 약 40개소
- 총: 참가자는 총720명 → 총 720명



- 그러나 '비상시', '평상시'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사용되는 단어는 붙여 쓴다.

비상시, 필요시, 유사시, 평상시, 혼잡시, 일출시, 일몰시

- 다만 '간'이 앞말과 함께 한 단어로 굳어진 예들은 붙여 쓴다.

국제간, 다자간, 피차간, 고부간, 부녀간, 부부간, 부자간, 동기간, 천지간

참고> 이번에, 이후, 그동안, 그중, 지난해, 더욱더

다시 v 한번

한글맞춤법 예시

붙여쓰기가 가능한 것은?

▶ 기관, 단체

- 기관(위원회, 협회 등), 단계(공단, 공사, 조합 등), 기금 등의 이름은 붙여 쓸 수 있다.

중앙수선조정위원회, 축산업협동조합, 한국마사회,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

▶ ~시설, ~사업, ~계약, ~계획, 직종 등의 이름

- '고유명사 성격의 명사구'는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쓸 수 있다.
- ▶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 등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한정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경우, 즉 노인복지시설, 가맹계약, 노인복지상담원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 성격의 명사구'로서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서 일정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의미가 한정됨

가맹계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의미가 한정됨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된 사람을 의미함

▶ 행정처분

- 하나의 법률행위나 행정처분은 붙여 써도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알아보기 쉽게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허가, 영입장시, 허가취소, 인가취소, 등록취소, 변경허가, 변경인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중시명령, 착공신고, 폐쇄명령, 행정처분

▶ 장관 직책

- '기관 이름'과 '장관 직책'은 붙여 쓴다.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 장 제목

- 법령문에서 '장 제목'은 글자 간격을 별리지 않고 붙여 쓴다.

제 1 장 총칙 → 제1장 총칙
제 9 장 법칙 → 제9장 법칙

어휘를 의미에 맞게

질답이 신청과 접수 의미가 다를까?

신청을 써야 할 곳에 접수를 쓰는 경우가 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 신청: (국민, 민원인 등이) 단체나 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일러 청구함
- 접수: (기관이)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음

접수는 공공기관을 작성한 기관에서 하며, 응시자는 서류를 제출한다.

☑ 원서는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 누리집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 지원자들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 누리집에서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 방문 접수 등 문의는 과제별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방문 제출 등 문의는 과제별 문의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택1)

⇒ 방문 또는 우편 제출(택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구성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

⇒ 구성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통일하여 쓰기

☑ 통일할 용어 목록

대상 용어	통일 표현	대상 용어	통일 표현
불(弗)	달려	혹은	또는
월	개월[기간의 단위로 쓸 때]	화상회의	영상회의
얼다	받다	1월말까지/ 6월말까지	1월 31일까지/6월 30일까지
평방미터	제곱미터		
해외	국외	2월말까지	2월 말일까지
해외동포	재외동포		



에

승인을 **얼다** → 승인을 **받다**
 면허를 **얼다** → 면허를 **받다**
 인가를 **얼다** → 인가를 **받다**
 동의를 **얼다** → 동의를 **받다**

공공언어의 요건

영역	요소	항목
정확성	표기의 정확성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였는가?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였는가?
	표현의 정확성	어휘를 적절하게 선택하였는가? 문장을 문법에 맞게 표현하였는가?
소통성	공공성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차별적 표현(성, 지역, 인종, 장애 등을 삼갔는가?)
	정보성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제시하였는가?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정보의 배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용이성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생산자 중심
=만드는 사람

독자 중심
=보는 사람

공공성-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정비 기준

행정기관이나 특정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어감을 내포하고 있는 관(官) 중심의 표현은 쓰지 않는다.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용어, 권위적인 용어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주
차
를
삼
기
는
바
람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풀이] '처하다'는 "벌금에 처하다" 또는 "과태료에 처하다"와 같이 쓰는데, 이 말은 "벌을 내린다"라는 의미를 함축한 말로서 수직적 상하관계가 겹으로 드러나는 고압적·권위적 표현이다. '처하다'의 법제처 대체 표현은 '부과하다'이다.

㉢ 교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교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격하고 바르게 처리할 것을 부탁하였다.

[풀이] '당부하다'는 주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라는 인상이 강하므로 권위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다를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다를 때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감점할 수 있음.

[풀이] 법제처에서는 "승인을 얻다"나 "동의를 얻다"와 같은 표현을 권위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얻다'를 '받다'로 바꾸어 쓸 것을 권장한다.

㉦ 전화로 문의 바람.

㉧ 전화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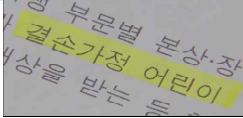
[풀이] '할 것'이나 '바람'은 다소 고압적인 명령처럼 느껴지므로 '하세요'나 '바랍니다'처럼 표현해야 한다.

차별어 정비 기준

성차별적인 용어, 특정 직업에 부정적 느낌을 갖게 하는 용어, 장애인을 비하(卑下)하는 어감이 있는 용어는 적절한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권위적·차별적 표현

-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성별, 지역, 장애, 인종, 민족 등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은 지양합니다.
-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존 쓰던 말	다듬은 말	보기
소외 계층	삭제/취약 계층	소외 계층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음
탈북자/새터민	북한이탈주민	1997년에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쓰임
미망인	고(故) ○○○씨의 부인	미망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미처 그러지 못하고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을 뜻함
장애우(友)/ 장애자(者)	장애인	장애우라는 단어는 타인이 장애인을 가리켜 부를 때가능하지만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지칭할 수 없음
미혼모(未婚母)	비혼모(非婚母)	미혼모는 결혼해야만 자녀를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음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자라는 우리

3월은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는 달!

이주 배경 학생들과도 너나없이하며

이주 배경 학생 | 교육부에서는 다소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되는 '다문화 학생' 대신 '이주 배경 학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너나없이하다 | 서로 너나 나나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네다.

어우렁더우렁 지내는 따뜻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우렁더우렁 |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들떠서 지내는 모양.



KBS 한국어 2025. 4.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차별적 언어를 짚어 볼까요?

눈먼 돈 >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꿀 먹은 병어리 >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장애를 낮잡아 보거나 회화화하는 표현입니다

장애인과 일반인 >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를 앓다 > 장애를 가지다/겪다

자라는 경향이 있거나 트이하 것이라는 인식이 다기 표현입니다

차별어

2006년 다문화가정, 다문화학생

교육부에서는 다문화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제거하고 포용과 통합 강조를 위해/ 기존의 '다문화학생'에서 '이주배경학생'으로 용어를 변경

용이성-문장의 길이를 적절하게

1문장은 1~2개의 정보(핵심내용)으로 2~3줄 이하로 작성

문장은 되도록 짧게 쓰기

2000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우리 시에서는 제1회 의료 사진전을 통해 응급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응급 의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7월 20일까지 ○○시 △ △ △ 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2000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우리 시에서는 제1회 의료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 ② 이 사진전은 응급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응급 의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③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7월 20일까지 ○○시 △ △ △ 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가지 정보는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작성!



소통성 예시 | 국립국어원(김미형) 인용

행정업무운영편람

- <참고> 공문서 작성 및 처리 37쪽 -

<우리말다운 표현 사용>

1. 과도한 명사화 구성을 피한다.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설) 과도한 명사화 구성은 문장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므로 조사나 어미를 써서 의미를 명확히 표현한다.
2. 번역 투 표현을 지양한다.
선정된 점포에 대해서는 → 선정된 점포에는
(해설) '~에 대해서'는 번역 투 표현이므로 피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응벽 붕괴, 도로 포트홀, 지반침하 등에 따른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위험상황 발견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명사 나열식 표현

명사 혹은 명사형 표현을 나열하면 문장이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조사, 어미, '~하다' 등 생략된 문법적인 요소들을 추가해 줍니다.

기존 쓰던 말	다음은 말
계약서 작성시 해당 학교 제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부패유발 제도·관행의 시정 건의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을 시정할 것을 건의
자기 계발 기회 보장을 위한 학습 여건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려면 학습 여건 등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신속 대응을 위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 이용 바람	적극적으로 이용 바람

내일까지 장마전선 영향으로 많은 비 예상
▲야영장, 캠핑장, 낚시터 등 이용 자제 ▲계곡, 하천 산책로, 침수도로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및 안전 유의[경기도청]


지나치게 격식적인 표현

어미 '-오'는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겸양 표현이지만 일상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쓰던 말	다음은 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하고자 하오니	지정하고자 하니
공개모집하오니	공개 모집하니

[서초구] 내일까지 강한바람이 지속되오니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판, 현수막, 공사장 펜스 등 시설물을 고정하여 주시고 강풍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언어의 역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국민의 언어생활에 모범

바른 공공언어 사용의 필요성

• 소통의 원활함

• 경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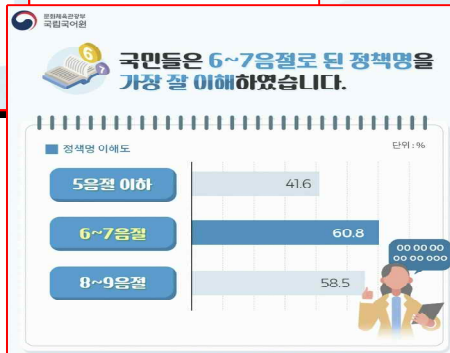
【 표 12. 공공언어 종류별 시간 비용 추정 결과 】

구분	2010년(가)	2021년(나)	증감(나-가)
민원 서식	약 170억 원/연	약 1,952억 원/연	1,782억 원/연
정책용어	약 114억 원/연	약 753억 원/연	639억 원/연
약관·계약 서류	—	약 791억 원/연	—

• 공적 가치 비용 절감

【 표 13. 공익적 가치 비용 추정 】

(전체) 약 3,375억 원
- (정확한 정보) 약 1,216억 원/연
- (정부 업무 효율성) 약 621억 원/연
- (심리적 스트레스) 약 1,272억 원/연
- (정보 습득 표준화) 약 542억 원/연
- (기타-투명성, 언어 사용 모범 등) 약 97억 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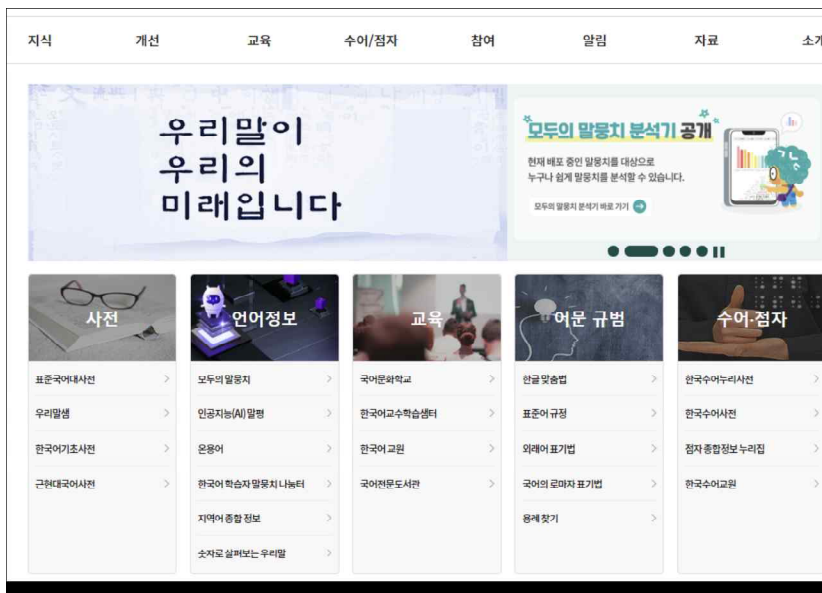
쉬운 공공용어 실천하기

실천 하기!

알기 쉬운 정책용어 만들기!

○ 정책용어는 기존에 있던 용어가 아닌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용어입니다. 정책용어의 특성상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꿀 수 없으므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용어는 정책의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도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정책용어 😞	잘 지은 정책용어 😊
글로벌에이징센터, K-Move스쿨, 월드클래스300, 메이커교육, 스마트시티, 스마트워크, 오픈캠퍼스, 스마트팜혁신밸리, 비즈클, 디지털원패스, YES FTA, 혁신클러스터, 올부즈앤, 캠퍼어, 레인보우스쿨, 덕터앤서, Help-bell, 제로페이 등	예: 서울시 버스정류장 온기쉼터 이름 바라막이쉼터, 따솔쉼터, 온기함께터, 온기충전소, 온기나루, 온기통, 온기누리소, 온기종기, 온기나눔쉼터, 강북따솔터, 강남따솔소, 동장군대피소, 영등포근포근방, 추위늬이소, 훈훈온두막



공공언어를
작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국립국어원
(<https://korean.go.kr>)

참고 자료

- 국립국어원(2025), 『바른 국어생활』
- 국립국어원(2020), 『유형별 보도 자료 쓰기』
- 국립국어원(2023),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 국립국어원(2016),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제10판
- 한은주 외(2018), 『알기 쉽고 쓰기 쉬운 공공언어(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총서 5)』
- 경기도 누리집([경기도청](#))



감사합니다.

한은주(yuyu3511@naver.com)

2025 경기도 공공언어개선사업
찾아가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

내 문서는 몇 점?
공문서 평가제도 바로 보기

신연수(국립국어원)

2025년 공문서 평가 개요

- 평가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평가 대상: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평가 기간: 3~11월(공공기관 등), 3~12월(지방자치단체)
- 평가 항목: 각 기관 보도자료의 용이성과 정확성 평가
 - 용이성: 외국 글자, 어려운 외국어 사용
 - 정확성: 어문 규범 오류, 비문법적인 문장 사용

공문서 평가 시행 근거

•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문서 평가 관련 규정

- 국어기본법

- ✓ 공문서의 작성(법 제14조제1항)

-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공문서 평가 관련 규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영 제11조)

-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평가 관련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어문 규범의 준수와 한글 사용(영 제7조제1항)

-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 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 ✓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영 제7조제2항)

-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문서 평가 기준



공문서 평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평가 기준
용이성 (어려운 표현)	1. 어려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대체 가능한 외래어(외국어) 사용* 2. 외국 글자로 쓰인 표현
정확성 (잘못된 표기·표현)	1.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오류 2. 비문법적인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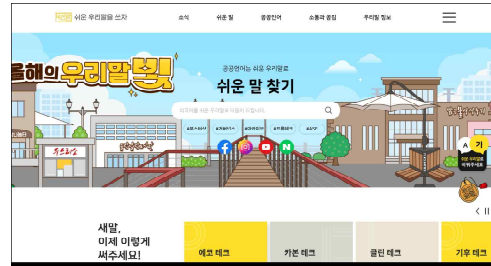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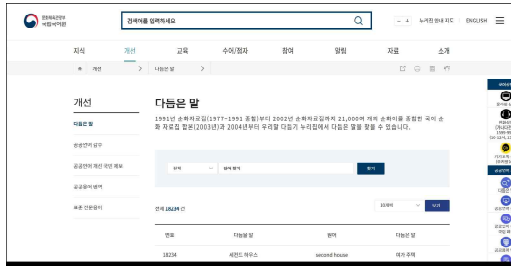
*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60% 미만의 국민이 해당 용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용어 목록 ('대국민 이해도 조사'에 따른 목록)

공문서 평가 항목: (1) 용이성

- 쉬운 표현으로 대체 가능한 외래어(외국어) 사용
- '대국민 이해도 조사'에 따른 용어 목록 별도 제공(수시 갱신)
 - ✓ 규제 프리 존 → 규제 청정 지역, 규제 자유 구역 등
 - ✓ 기후플레이션 → 기후발 물가 상승
 - ✓ 니즈 → 수요, 바람
 - ✓ 이에스지(ESG) → 환경·사회·투명

공문서 평가 항목: (1) 용이성

- 다듬은 말을 검색할 수 있는 곳
 -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 > 개선 > '다듬은 말' 게시판
 - 국어문화원연합회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plainkorean.kr)



공문서 평가 항목: (1) 용이성

- 외국 글자(한자, 로마자 등) 사용
- 외국 글자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해야 함
 - ✓ 對美 수출 → 대미/미국 대상 수출
 - ✓ 9개 社 → 9개 사/회사
 - ✓ UN → 국제연합(UN)
 - ✓ AI → 인공지능/에이아이(AI)

공문서 평가 항목: (2) 정확성

- 표기의 정확성: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 한국어의 어문 규범
 - 한글 맞춤법: 한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 표준어 규정: 표준어를 정하는 원칙과 표준 발음법
 -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

공문서 평가 항목: (2) 정확성

- 표기의 정확성: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 어문 규범 오류
 - 두음 법칙 오류
 - 사이시옷 적용 오류
 - 가운뎃점 오류
 - 괄호 뒤 조사 사용 오류
 - 오타자
 - 외래어 표기법 오류

공문서 평가 항목: (2) 정확성

- 표기의 정확성: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구분	사례	수정안
두음 법칙 오류	남여 자부담을 회계 년도	남녀 자부담를 회계 연도
사이시옷 적용 오류	하교길 수도물 머릿말	하곳길 수돗물 머리말
가운뎃점 오류	국내·외 민·관 초·중·고	국내외 민관 초중고

공문서 평가 항목: (2) 정확성

- 표기의 정확성: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구분	사례	수정안
괄호 뒤 조사 사용 오류	담당자(○○○ 부장)은 전자우편(○○@○○)로	담당자(○○○ 부장)는 전자우편(○○@○○)으로
오타자	일사분란 청렴도	일사불란 청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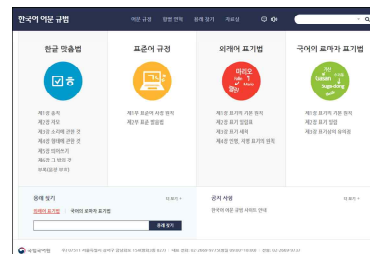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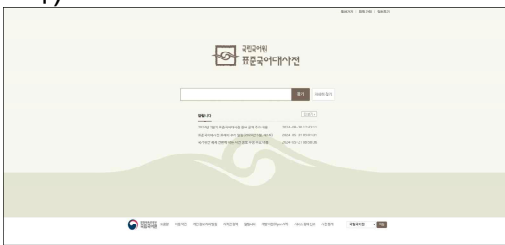
공문서 평가 항목: (2) 정확성

- 표기의 정확성: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구분	사례	수정안
외래어 표기법 오류	컨퍼런스 솔루션 서포터즈 숏폼 메세지 어플리케이션 워크샵 파트너십	콘퍼런스 설루션 서포터스 쇼트 폼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워크숍 파트너십

공문서 평가 항목: (2) 정확성

- 바른 표기를 검색할 수 있는 곳
 -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 > 어문 규범 > '용례 찾기' 게시판(외래어)



공문서 평가 항목: (2) 정확성

- 표현의 정확성: 어법에 맞게 쓰기
- 문장의 어법 오류
 - 호응 오류
 - 접속 오류
 - 생략 오류
 - 조사, 어미 사용 오류
 - 어휘 사용 오류

공문서 평가 항목: (2) 정확성

- 표현의 정확성: 어법에 맞게 쓰기
- 호응 오류
 - ✓ 수상작의 선정은 사전 온라인 평가와 현장 투표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 수상작은 사전 온라인 평가와 현장 투표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공문서 평가 항목: (2) 정확성

- 표현의 정확성: 어법에 맞게 쓰기
- 접속 오류
 - ✓ 평화 수호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
 - 평화 수호와 인권 보장
 - 평화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

공문서 평가 항목: (2) 정확성

- 표현의 정확성: 어법에 맞게 쓰기
- 생략 오류
 - ✓ 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했다.
 - 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했다.

 - ✓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방안까지 마련했다.
 -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방안까지 마련했다.

공문서 평가 항목: (2) 정확성

- 표현의 정확성: 어법에 맞게 쓰기
- 조사, 어미 사용 오류
 - ✓ 이 지역의 도로망 구축이 완료됨으로서 교통 문제가 해결되었다.
→ 이 지역의 도로망 구축이 완료됨으로써 교통 문제가 해결되었다.
 - ✓ 세계 최대 축제에 걸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세계 최대 축제에 걸맞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문서 평가 항목: (2) 정확성

- 표현의 정확성: 어법에 맞게 쓰기
- 어휘 사용 오류
 - ✓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리집에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우리 기관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공문서 평가 항목: (2) 정확성

- 표현의 정확성: 어법에 맞게 쓰기
- 어법에 맞는 문장 쓰기
 - 문장 성분의 호응 →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지키기
 - 대등한 성분의 접속 → 구조가 같은 표현끼리 접속하기
 - 필수 성분의 제시 → 문법적, 의미적으로 꼭 필요한 성분을 밝혀 적기
 - 조사/어미의 사용 → 적절한 조사와 어미를 사용하기
 - 어휘의 사용 → 맥락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기

참고 자료

- 국립국어원 2025년 공공기관 등 공문서 평가 설명회
https://korean.go.kr/front/board/boardMovieView.do?board_id=16&b_movie_type=&mn_id=85&b_seq=256&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접속일: 2025. 7. 25.)
- 국립국어원(2022),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개정판).
 - 내려받는 법: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 > 연구·조사 자료 > 기타 자료

고맙습니다.

신연수(yeonsoo1204@daum.net)

2025 경기도 공공언어개선사업
찾아가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

**알 듯 말 듯,
헛갈리는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김선화(국립국어원)

연말이라 정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 한참 바쁜 데 김사장이 또 다시 나를 호출했다. 오늘 만해도 벌써 다섯번째다. 하지만 그와 나는 갑을 관계. 열 받아 봤자 나만 손해다. 무거운 발걸음 안으로 마치 못해 사장실에 들어서니 그가 자기 몸집보다 큰 안락 의자에 파묻히다시피 앉아 있었다. 눈에 띠게 줄어든 머리숱, 광대가 드러날 만큼 움푹 패인 볼때기, 벌름거리는 콧망울, 눈썹에 닿을 듯이 찢어진 눈꼬리, 두툼한 귓볼, 눈밑의 사마귀, 까지도 무지 예순을 갓 넘긴 나이로 볼 수 없을 만큼 노쇠한 그를 내려다 보며 '이번엔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내 눈 앞으로 서류 뭉치가 날아 들었다.

"어이, 이부장 아니 이씨. 이 손익 계산서 살펴 봤나? 수익율 이 이게 뭔가? 도대체 자네가 하는 일이 뭔가? 그러면서도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 가니 직장인이 상팔자구만."

김사장의 이런 험한 말에는 이골이 난만큼 귓등으로 흘러드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나도 그에 질세라 험한 말을 쏟아낸다. 물론 마음 속으로만.

'막돼 먹은 놈, 정말 어이 없네. 네가 말도 안되는 프로젝트를 밀어부쳐서 이 사단이 난 건데 되려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사장이 좋기 좋구만.'

* 출처 : 채널에스

다음을 바르게 고치시오

◆ 문장을 쓸 때는 오탈자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작년부터 **관계 기간**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 작년부터 **관계 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 국비 지원이 **줄어듬**에 따라 도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비 지원이 **줄어듬**에 따라 도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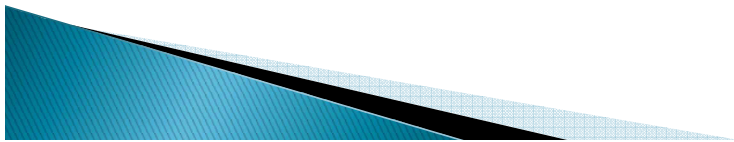
“ 실종자 가족분들을 **만나 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 실종자 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음을 바르게 고치시오

◆ 문장을 쓸 때는 오타자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진출에 지원군 되달라 당부
=> 해외 진출에 지원군 되어달라 당부

“ 엔터테이먼트, 반도체, 홍보 등 8개 분야
=> 엔터테인먼트, 반도체, 홍보 등 8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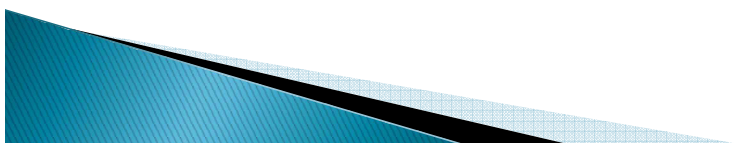
다음을 바르게 고치시오

◆ 이미 한 단어로 굳어진 말에는 가운뎃점(·)을 사용하지 않는다.

⇒ 사전 찾아보기

“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다음을 바르게 고치시오

- ◆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 ◆ 외래어 표기법 1장 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 다듬은 말로도 적을 수 있다.

“ 용인미르스타디움 2층 **데크** 광장
=> 용인미르스타디움 2층 **덱** 광장
=> 용인미르스타디움 2층 **평상** 광장

다음 어휘들의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가요?

“ Leadership	리더쉽
“ Workshop	워크숍
“ Highlight	하일라이트
“ Leisure 용품	레저용품
“ Carpet	카펫
“ Mania	마니아
“ Cake	케익
“ frypan	프라이팬
“ Accessory	악세서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업무규정)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어문 규범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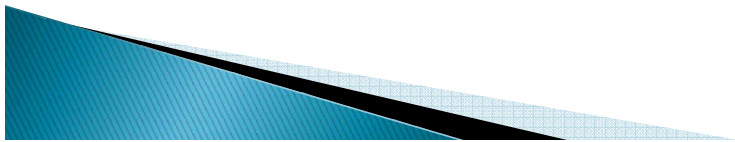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Korean Language Grammar' website. The header includes the site name and navigation links for '어문 규정', '항별 연혁', '용례 찾기', and '자료실'. The main content is organized into four column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aspect of the grammar rules:

- 한글 맞춤법 (Hangeul Spelling):** Represented by a blue circle with a checkmark and the letter 'ㅎ'. It lists sections 1 through 6, including basic principles, examples, and rules for specific sounds and punctuation.
- 표준어 규정 (Standard Language Regulation):** Represented by a yellow circle with a laptop icon. It lists sections 1 and 2, covering principles and methods for standard language.
- 외래어 표기법 (Transcription of Foreign Words):** Represented by a red circle with the name '마리오' (Mario) and its transcription 'Falin Mario'. It lists sections 1 through 4, covering basic principles, general rules, specific rules, and principles for proper nouns and place names.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Romanization of Korean):** Represented by a green circle with the name '가산' (Gasan) and its transcription 'Gasan Suga-dang'. It lists sections 1 through 3, covering basic principles, general rules, and specific rules for proper nouns.

At the bottom, there are search bars for '용례 찾기' (Example Search) and '공지 사항' (Notice), along with a search bar for '외래어 표기법' and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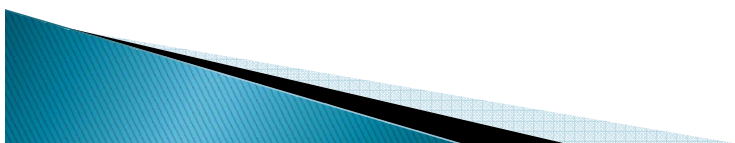
한글 맞춤법 총칙

-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표준어 규정 제1장 총칙

- “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 제1장 총칙
 - ㉓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㉔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 “ 제2부 표준 발음법
 - 제1장 총칙
 - ㉓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 추가 목록(2017년 5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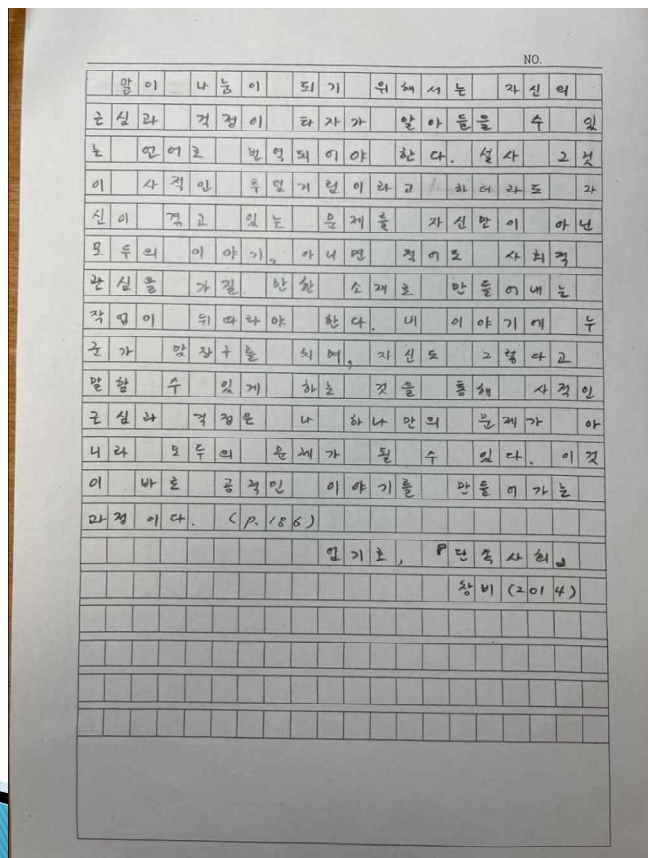
- “ 꺼림칙하다/꺼림직하다
 - “ 께름칙하다/뀌름직하다
 - “ 추어올리다/추켜올리다
 - “ 치켜세우다/추켜세우다
 - “ 추어올리다/추켜올리다/치켜올리다
- “ 그 외 2011년 39항목, 2014년 13항목, 2015년 11항목, 2016년 6항목이 있음. (국립국어원 - 2018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해설 참고)

외래어 표기법

- “ 제 1 장 표기의 기본 원칙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 제 2 장 표기 일람표
- “ 제 3 장 표기 세칙
- “ 제 4 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 “ 부칙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이 헛갈릴 때는?

- “ 사전을 찾아본다.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사전)
 - 사전 제대로 보는 법
- “ 어문규정을 찾아본다.
- “ 외래어 표기법 용례를 찾아본다.
- “ 개선 - 다듬은 말을 찾아본다.
- “ 평소에 할 일
 - 빨간 줄, 한번 더 살펴보자
 - 띄어쓰기의 감각을 위해, 원고지 필사(쪽-원고지-선택)



철썩같이 믿었다간...

◆ 문득과 문뜩

“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 / 어떤 행위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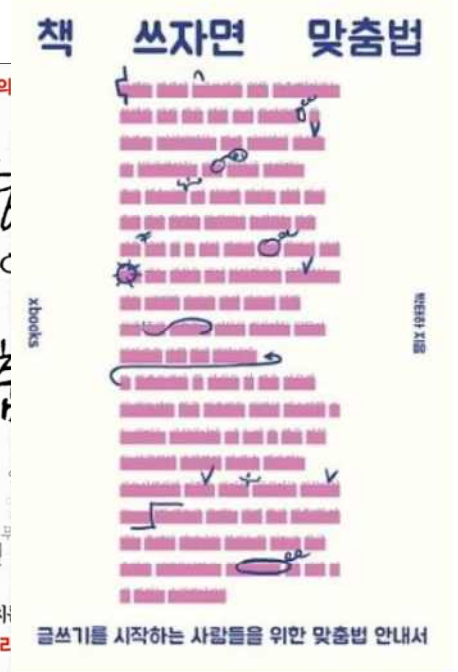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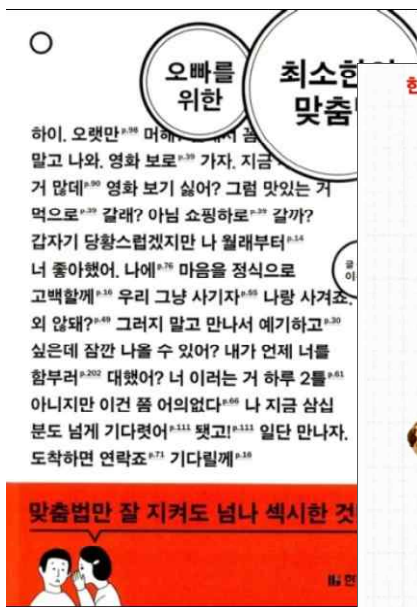
○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 ‘문득’보다 센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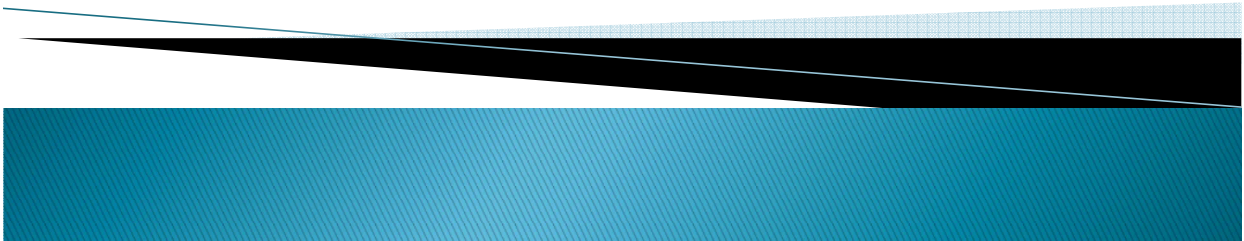
○ 문뜩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 하나 더, 문득과 문뜩

“ 철썩같이? 철썩같이!



감사합니다



2025 경기도 공공언어개선사업
찾아가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

자주 틀리는 문장 표현 교정하기

권우진(국립국어원)

문장 바로 쓰기

1. 바른 문장의 특징
2. 우리말 문장 특징
3. 공문서 문장 바로 쓰기
4. 자주 나타나는 오류

- ①소화전 밸브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개방한다.
- ②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한다.



현장 검증, 실황 조사서 작성 시,
명시적이면서 객관성을 확보한 문장인지 살핀다.

1. 바른 문장의 특징

바른 문장: 간결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집중하여 ~~여러 번 읽어야 하는~~ 글은 좋은 글이 아님.

【 표 1 】

고치기 전	고친 후
베란다 및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다른 세대에서 담배 연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사오니 베란다 및 계단에서는 금연 및 담배꽂초를 밖에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란다와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피해를 봅니다. 베란다와 계단에서는 금연해 주시고 꽂초를 바깥에 버리지 마십시오.

바른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

1) 명료함 :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은 쓰지 않는다. 시간, 날짜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의미 전달이 왜곡되지 않는다. 어려운 어휘를 선택하면 문장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되도록 쉬운 어휘를 선택한다.

예) 일정 시간 이상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참가 할 수 있다.

→ 10시간 이상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참가 할 수 있다.

이 서류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이 서류를 받은 후 0월 0일 0요일까지 수정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2월 28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 2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함.

2) 반듯함 : 어법에 맞고 문장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바른 문장은 목적과 대상에 맞게 쓴 문장이다. 내용에 맞는 제목을 달고, 일관되게 서술한다. 문장성분 간 호흡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나 어미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소원'과 '기원'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한 번만 사용

예1) 내 소원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 내 소원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1) 000 기자로 활동하고 싶은 어린이는 지원서와 지정주제 기사 1편을 000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 000 기자로 활동하고 싶은 어린이는 지원서와 지정주제 기사 1편을 000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3) 간결함 : 문장은 간결해야 한다.

문장이 간결하다는 것은 **군더더기를 빼라는 의미이다.** 문장을 지나치게 길게 쓰지 않는다. 문장이 **두 줄 이상 넘어가면 의미 전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문장 길이 뿐 아니라 문장 구조도 **간결해야 한다.** 간결해야 한다고 해서 **필요한 조사나 어미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예1) 저녁시간대에 운동을 하면 적은 운동량에도 운동 효과가 아주 높고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

→ 저녁 시간에는 적게 운동해도 효과가 높다. 저녁 운동은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예2) 나이를 먹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 나이 든 것을 자주 느낀다./ 나이 먹는 것을 자주 느낀다.

4) 용이함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한다. 단어가 어려우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한자어나 낱선 전문용어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는 경우에는 **한자어나 외래어보다는 되도록 우리말을** 사용한다.

예1) 난이도가 점점 심해졌다.

→ 점점 어려워졌다.

예2) 주가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2. 우리말 문장 특징

우리말,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어 문장의 주요 특징

- 〈주어+목적어+서술어〉 구조
- 문법적 기능으로 조사, 어미 사용
-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앞에 음

우리말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

세 가지 문장 성분은 서로 잘 호응해야 의미 전달이 잘 된다. 주어-서술어, 목적어-서술어는 반드시 호응해야 한다. 문장이 길어져 주어와 서술어의 거리가 멀어지면 호응이 잘 안될 수 있다.

(1) 주어와 서술어는 짝이 잘 맞아야 한다.

예1)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달러 환율이 하락하여 하반기 수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달러 환율이 하락하여 하반기 수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였다.

- ① 자동 커피 판매기
→ 커피 자동 판매기
- ② 최근 법원의 보수적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 법원의 보수적인 최근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 ③ 이런 경찰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 경찰의 이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 ④ 온통 방안이 고기 냄새로 배어 있다.
→ 방안이 고기 냄새로 온통 배어 있다.
- ⑤ 하루에도 사치와 향락에 빠져 수백만 원씩 쓴다.
→ 사치와 향락에 빠져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쓴다.

3. 공문서 문장 바로 쓰기

정확하고 쉬운 공문서 문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

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능동과 피동 등 헛갈리기 쉬운 것에 유의한다.

(1)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명을 선출되었다.(×)

→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명을 선출하였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명이 선출되었다.(○)

(2) A씨는 올 3월27일 새벽 1시 양구읍 하리 모 식당 주변에 세워놓은 차량의 유리창을 깨 뒤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3개 상자를 훔쳐 달아나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다.

→ A씨는 올 3월27일 새벽 1시 양구읍 하리 모 식당 주변에 세워놓은 차량의 유리창을 깨 뒤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3개 상자를 훔쳐 달아났다. 이에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원서는 2022년 1월 17~21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 지원자들은 2022년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4) 평생 호전과 악화를 반복되므로 증상이 없는 '관해' 시기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평생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므로 증상이 없는 '관해' 시기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 지나치게 긴 문장 삼가기:

여러 가지 정보는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1) 2000년 0월 0일부터 0월 0일까지 00시에서는 제1회 의료 사진전을 통해 응급 의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0월 0일까지 00시 보건복지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2000년 0월 0일부터 0월 0일까지 00시에서는 제1회 의료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 ② 이 사진전은 응급 의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③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0월 0일까지 00시 보건복지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사업자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3)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가기: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사용한다.

(1)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X)

→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O)

→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O)

4) 명료한 수식어구 사용:

수식어구가 무엇을 수식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1) 금5킬로그램 상당의 보관함(X)

→ 금5킬로그램 상당을 담은 보관함(O)

→ 금을 담은 5킬로그램 상당의 보관함(O)

5)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성: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접속 표현을 사용할 때

- (1) 철원과 동해 확진자는 직장 동료간 감염 사례로 파악됐고, 양구 확진자 2명은 유치원생으로 경로를 조사 중이다.

→ 철원과 동해 확진자는 직장 동료간 감염 사례로 파악되었다. 양구 확진자 2명은 유치원생인데, 이들의 감염 경로는 아직 조사 중이다.

→ 철원과 동해 확진자는 직장 동료 간 감염 사례로 파악되었다. 양구 확진자 2명은 유치원생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조사 중이다.

6) 문장의 종결은 간결하고 뜻이 분명하게 한다.

- ① 새로운 세상의 출범 선언에 다름 아니었다.

→ 새로운 세상의 출범 선언이었다.

- ② 더욱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더욱 지혜롭게 판단하시기 바란다.

- ③ 한자 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고 본다.

→ 한자 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

4. 자주 나타나는 오류

1) 문장 부호 사용 오류

(1) 장소 : 00공원 잔디마당

일시 : 2018. 2. 3~4

→ 쌍점(:)은 앞말에 붙이고 뒷말과는 띄어 쓴다.

장소: 00공원 잔디마당

(2) ~따라서, 각 기관은 새로 정해진 규정에 맞게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 접속사 뒤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

2) 과도하게 사용하는 '의'

소유나 종속 의미 이외에 '의'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일이 많다.
어색하지 않은 조사나 서술어로 바꾸는 게 좋다.

(1) 수입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근로 인원이 감축되면서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 ~가격이 하락하고 근로 인원이 감축되면서~

(2) 최근 조사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평균 교육비는 2천 124만 2,500원이라고 한다.

→ ~대학에 이르기까지 드는 평균 교육비는~

(3) 000어르신의 종일 물 사용량이 지속됩니다.

→ 000어르신이 물을 계속 사용합니다.

3) 과도하게 사용하는 피동형, 사동형 문장 형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할 때에는 능동형을 쓰는 것이 좋다.

(1) 철수는 우리 동네에서 대장이라고 불리어진다.

→ ~불린다.

(2) 수학문제가 난해해서 잘 풀려지지 않는다.

→ ~풀리지~

(3) 천 년 전 화석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피동형+어지다/이중 피동

→ ~생각된다.(생각한다)

(4) 정씨는 이와 똑같은 실수가 반복돼 결국 해고됐다.

→ '되다' 반복

(5) 문제를 유발시키다.

→ 문제를 유발하다. 이중 사동. 이미 사동 의미를 포함함.

4) 접속과 나열

'A와/과 B'에서 A, B는 유사한 성격이어야 함.

- (1) 고기와 야채, 나와 너(체언의 결합)
- (2) 사과 두 개와 배 한 개, 작은 개와 큰 개(명사구의 결합)
- (3) 회사에 가는 것과 집에서 쉬는 것(명사절의 결합)

(4) 짧은 시간과 경비 때문에

→ 시간이 짧고 경비가 들어서

(5)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6) 학교 폭력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기로 했다.

→ ~상담을 하고 신고를 받기로

(7) 미영이와 고양이를 안은 엄마가 길을 가다 갑자기 멈췄다.

→ 고양이를 안은 엄마가 미영이와 길을 가다

5) 과도한 명사절 사용

'-기', '-ㄴ'을 붙여 명사형을 만들지 말고
용언의 끝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1) 미세먼지가 계속됨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심해졌다.
→ 계속되어
- (2) 집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었다
→ 올랐어도
- (3) 날씨가 따뜻해졌음에도 감기 환자가 많다.
→ 따뜻해졌지만(따뜻해졌어도)

6) 명사형 어휘 나열

문장을 간결하게 하려고 명사형 어휘를 과도하게 나열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 (1) 독감 감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회의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독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실시~

【활동 4】

- ① 신속 대응을 위해 → 신속한 대응
- ② 적극 이용 바람 → 적극적으로 이용

7) 외국어 번역투

① 영어 번역투 표현 삼가기

- (1) 설악산은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다.
→ 강원도에 있다.
- (2) 나는 슬하에 아이 셋을 가지고 있다.
→ 아이가 셋이다.
- (3) 대법원은 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 그에게
- (4)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 안전 불감증으로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

② 일본어 번역투 삼가기

~에 있어서: ‘~에 대하여’, ‘~에 관하여’, ‘~에서’등으로 바꾸어 사용

- (1) 우리의 목표는 조국 통일에 있다.
→ 우리의 목표는 조국 통일이다.
- (2) 이번 선거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엄단합니다.
→ 이번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엄단합니다.
- (3) 품질에 있어서 세계 최고
→ 품질은 세계 최고/ 품질에 관하여 세계 최고/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 (4)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換率·金利 大폭...



豫算4千億 削減案
公무원消費節約案
崔大統領

어려운 한자어	다듬은 말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위의(위에 적은) 내용과 관련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정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동 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의 하나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표현	적절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부형으로 하기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후보로 등록 필할 수 있음. · 기한 내에 미납 시 급식운영에 차질 초래가 우려됩니다. · 동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학교의 학부모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 되지 않으신 분은 후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마감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급식 운영이 어려워 집니다. ·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경기도 공공언어개선사업
찾아가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

**현직 기자가 전하는
보도자료 작성 실전 노하우**

이경주(서울신문)

★ 이경주

- =서울신문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국제부, 산업부 등 거쳐 워싱턴특파원.
- =서울 노원구, 용산구, 중랑구 등 강의, 서울신문 공보아카데미 강의.

★ 논문

- =베노이트의 이미지회복전략이론에 따른 한국 신문의 보도 행태에 관한 연구
- =위기관리 모델에 입각한 신정아-변양균 사건 분석(광고학 연구 제19권 2호)
- =미 반월가 시위가 한미기업에 미친 영향 연구: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 저서

- =마흔 고전에게 인생을 묻다(2013년, 글담)
- =성장에 익숙한 삶과 결별하라(2015년, 아날로그)
- =무채색 아저씨 행복의 도구를 찾다(2022년, 아날로그)

기본부터 들여다보죠

embargo &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프레스 투어)

기자회견(긴급한 이슈)

정례브리핑

백 브리핑(추가 설명)

딥백 브리핑

해명자료(보도가 진실이 아닐 때)

설명자료(보도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음)

정정보도(보도가 진실이 아닐 때)

반론보도(보도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음)

기자의 하루

07:30-09:30 기자 24시
기자들이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방송, 신문,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본다

09:30-09:50 신문기사 확인 및 보도아이템 탐색

09:50-09:55 현장취재

09:55-10:00 기사마감 및 방송제작

10:00-10:05 메인뉴스

10:05-10:30 출입처 관련사항 보고

10:30-10:35 취재지시 및 취재

10:40 기사 마감

10:45 가판신분 확인

10:50 2판 마감

11:00 3판 마감

11:00 최종판 마감

11:00 출입처 관련사항 보고

11:05 취재지시 및 취재

11:10 기사 마감

11:15 기사아이템 취재 및 보고

11:40 가판신분 확인

11:50 기사취재

12:00 **신문-조간**

12:00 **신문-석간**

석간 신문 제작 완료 후 소는 조간 신문과 유사하나, 출간시간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함.

보도자료 쓰기

잘 쓴 보도자료, 기사보다 낫다

- Simple: 명료한 설명
- Speed: 요약과 그림
- Service: 쉬운 설명
- Seft: 팩트 체크

4

역피라미드로 쓰라는데

용산구 홍보담당관 ☎2199-6710 FAX2199-8304			
[2015. 11. 20(화) 07:40]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출일자 :	2015년 11월 20일	특허청과담당	조성삼 2199-7049
연분담당 :	경 손원 010-4763-5833	희망복지담당	안주원 2199-7061
보도담당 :	이영민 010-2107-4950	달궁과	조경익 2199-7062
■ 사회 활동 ■ 통 3복			

**성폭력 피해 여성가구 위해
공무원들이 뭉쳤다!**

용산구, 성폭력 피해 여성가구 위한 전문기관(슈퍼비전)

- 용산(사)인권리사, 구청 소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기관 관계자 대상
- 성폭력은 여성 경제상의 총체적 위기 극복할 수 있어
- 사회적 인식으로 신뢰나 발전 진로 기쁨 등 순기능 경험 많아
- > 가장빈곤 장애인성폭력의 해소가 차분 나옴
- 지난 20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

□ 용산구(구청장 심정현)가 지난 20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과 사례관리자로서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 제6차 돌봄사례관리 전문기관(슈퍼비전)을

제목

핵심박스

핵심문장

제목 뽑기, 핵심 능력

성북구 취재요청서


2015년 4월 2일(화) 배포 4월 4일(토) 오후 5시 행사

총 3명 / 사진 1명 / 특약가로 1부 담당부서 : 환경과

과장	최순호	224-3126
팀장	조희경	224-3011
담당	박영진	224-3023
인공홍보팀장	박승진	224-3038

개기월식 관측 골든타임 4월 4일
기자님을 '성북작은천문대'로 모십니다

- 성북구, "개기월식과 함께하는 별 볼일 있는 절전특강 행사" 개최
- 4월 4일(토) 17:00~ 성북구청 옥상 '성북작은천문대'에서
- 주민 200여명 전문지도사 10명 참여 부분월식개기월식(20:54~21:06) 관측
- '4억 절전의 달인' 심재철 석관두산아파트 주민대표의 절전특강까지!



4월 4일 토요일은 우리나라 개기월식의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이번 주말 농치면 3년을 더 기다려야 해!
 주민 200여명 성북구청 옥상 '성북작은천문대'에 모여
 전문지도사 10명 출동 경학원 관측 등!
 '4억 절전의 달인' 심재철 석관두산아파트 (천)주민대표 심재철씨의 절전특강까지!
 기자님을 "개기월식과 함께하는 별 볼일 있는 절전특강"에 모십니다!

잘 보이고
 흥미를 끌고
 이해가 쉬우면
 좋은 제목

희귀성에 대한 어필

사진설명도 중요한 보도자료



박성수(가운데)
 송파구청장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삼전초등학교에서 열린
 '2019 소통·공감
 원탁토론회'에서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
 주민들과 둘러앉아 지역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보도자료 배달해야죠

- ❧ 사업부서에 기자의 전화를 잘 받아달라 요청합니다
- ❧ 엠바고도 전략입니다
- ❧ 매체 전략을 만들어야죠
- ❧ 우호적인 기자에게 연락은 필수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 ❧ 파괴력 큰 기사에 묻히는 것
- ❧ 언론매체의 정치적 견해
- ❧ 기자의 개인적 선호도
- ❧ 데스크의 개인적 선호도



보도 자료 찾기

근데 보도자료 낼 게 진짜 없는데

- ❧ 사업부서는 안된다고만 하고
- ❧ 과장님은 새가슴
- ❧ 말도 안되는 보도자료 왜 내라는지
- ❧ 기자들은 이런 거 뭐하러 내냐 해요



기자는 이런 단어에 눈이 갑니다

- 최고- 스트레이트
- 최초- 스트레이트
- 유일한- 스트레이트
- 따뜻한- 박스
- 안타까운- 박스
- 희망- 박스



서울로7017이라고 부르나요?



기자는 이마트입니다



지난 것도 기사다



사람은 누구나 스토리가 있죠

“한국인 情에 통장 맡아... 독거노인 돕고 싶어요”



서울 용산구 첫 외국인 출신 통장 리다 니마리아

“만발위 통지서를 들더니 외국인 통장이 신기해서 위아래로 훑어보다보니 가까이 알고 독거노인들을 많이 돕고 싶어요.”
서울 용산구 후암동 후암시장의 한 떡집에서 20일 만난 22통 통장 리다 니마리아(45·여)는 용산구의 첫 외국인 출신 통장을 맡은 이유를 묻자 “경 많은 한국 사람이 좋았다”고 진언이 밝혔다.
그는 “가끔 한국인 남편과 싸우고 답답해질 때마다 시장 안에서 결혼 생활과 인생에 대해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다”면서 “이런 점이 한국에서 17년이나 살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막집 운영... 17년째 후암동 거주
중고생 아들 따돌림받을 뻔 슬퍼
정부, 다문화에 먼저 다가갔으면

간 살고 있다. 니마리아는 지난달 1일부터 2년간 통장을 맡았다. 이태원 등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용산구지만 외국인 출신 통장은 니마리아가 처음이다. 한국에서 오래 살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높은 평판을 얻는 경우가 드물어서다.
사실 지난 통장이 임기를 마치고 22통 통장 자리는 4개월간 공석이었다. 아파트가 1과 1차 시장 및 주택가인 관계로 담당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 고지서를 불러는 일이 많은 통장에게는 힘든 자리이 때문이었다.

니마리아도 처음에는 망설였다. 한국 언플(유니)는 자리도 맡기에는 외국어 실력도 완벽하지 않고 배울 것도 많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니마리아는 독거노인들을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할아버지가 매일 떡집을 찾그래미 보기에 불쌍하니 돈벌이도 자식도 없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매일 떡을 한 덩어리씩 드렸는데 이제는 안 오시면 걱정되고 궁금하다”고 말하며 웃었다.
성상현 용산구청장의 권유도 수로했다. 상 구청장은 니마리아가 인근에 많은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대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구 거주 결혼이민자는 1621명이다.
니마리아는 통장이 된 후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수급받는 한요령으로 한 거노인을 후원했지만 주소지가 재나 앞으로 돼 있어 재요했다. 그는 “이러 통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배우는 중이지만

다시 한번 시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니마리아가 다른 이를 돕는 데 적극적 인 이유는 다문화가정의 아픔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은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후에 학교에서 놀람을 받을 때 너무 슬퍼했다”면서 “한 아이는 초등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잘 지켜봐주고 고교까지 다니게 했다”고 말했다.
통장 니마리아의 첫 임무는 60여명의 민방위 고지서를 불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출방예행부를 나눠 주는 것이었다. 그는 “사람이 집에 없어 6-7 밤이나 놀라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외국인 통장을 신기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열심히 일할 것”이라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해피도 많이도 이를 배우고 싶을 만치 못하는 가정이 있는데 통장이 어떻게 먼저 찾아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영주 기자 indubon@daum.net

옥상텃밭이야 흔하죠

성북구 도심 텃밭엔 이웃사랑 ‘주렁주렁’

성북천 상지텃밭·구형 옥상텃밭
홍농노인들에 작물 서리 ‘선물’
판매 수익으로 불우이웃 돕기도
오늘 구청서 ‘어린이 텃밭 장터’



“잘 익은 농산물 사리라 가세요.”
서울 성북구 도시농업팀 정도희(58) 소장은 7일 구청 앞 상지텃밭에서 농작물을 배양하며 “여기 20가지 작물을 심었지만 이번 배양은 없는 데,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생계에 가지 못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홍농노인들이 입맛을 돋울 생미포기 독거노인들의 입맛을 돋울 생미포기 하면 부딪히다면서 “노인들이

서울 성북구 도시농업팀 정도희 소장이 7일 구청 5층 어린이 텃밭에서 수세미를 손질하고 있다.
사리를 하기 위해 여기까지 걸어오면 운도 댔더니 사리를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2012년부터 성북천변을 따라 배, 기장, 수수, 토란 등을 상지텃밭에 심고 있다. 불임 주렁지고 민영이 지금까지 5년 구형 주렁은 매년 대신 짐

는 수세미 정글터널, 생수통에 심은 도라지 등을 만들어 배주 3일씩 어린이 농작물 체험을 열고 있다. 최근 나무이 농작물을 받으러 김과 꽃고추를 심기도 했다. 채비용, 달걀부, 돼지갈비, 대파, 목화, 파, 기장, 수수 등도 추수를 기대고 있다. 이들 작물은 구 직원과 일민에게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불우 이웃을 돕는다.
농작물 키워야 하니 그의 출근 시간은 이른 6시다. 주민들은 정 소장을 만나면 농작물에 대한 질문을 하기 바쁘다. 정 소장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집에서 키우는 상추인데 나무도 세다는 것인데 상추는 아래쪽 잎부터 따먹고 그다음 따주어야 한다”면서 “오늘은 수세미를 키우고 싶어 하는 분이 늘고 있는데 중간에 놓이지 않게

게 지주를 잘 세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주민이 열한 경우 농작물도 배다하지 않는다.
정 소장은 8일 구청 비렁이텃밭에서 2014년 어린이 텃밭 네트워킹 장터’를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어린이와 학부모 및 교사 등 300여명이 모여 알뜰부터 정 소장과 함께 상지텃밭에서 가운과 과일을 판매한다. 수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정 소장은 “어린이들이 도시농업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마음을 기르고 민주주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이 농업의 장점이기 때문에 상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 믿고 모두 함께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이영주 기자 indubon@daum.net

침소봉대 잘 쓰면 약



전주 흥남시장. 흥남시장에 고척의 흥남시장과 비교하면 흥남시장의 활기찬 모습은 흥남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준다.

“노란선만 그었는데 시장이 살아났어요”

현장 방문

중앙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 성과

동원시장 전경 재개발 동행로 확보
초판 길두 달고 매출 10% 이상 늘어
5곳서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도
3년간 18억 지원 동부시장 관광육성

“과거에 비해 시장이 활성화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죽어있지는 않아요. 시장이 살아났어요.” 2014 중앙재래시장살리기(이하 중앙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이 시행된 이후 시장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8억 원을 지원하며, 시장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8억 원을 지원하며, 시장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란선이 들어간 중앙재래시장의 모습은 활기찬 모습을 보여준다. 중앙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8억 원을 지원하며, 시장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8억 원을 지원하며, 시장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형식 바꾸면 재탕 가능



나주시 (도움) 시립 흥남수영장터 2014 중앙재래시장살리기 사업 지원금 100% 지원

“구민들이 탈 암벽, 먼저 직접 올라봐야죠”

암벽등반 도전할 시립 중앙수영장
올라봐보려면 인공암벽장 내일 개장

2015-10-21

“자문 석회행은데 이 정도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2014 중앙재래시장살리기 사업 지원금 100% 지원

암벽등반 도전할 시립 중앙수영장
올라봐보려면 인공암벽장 내일 개장

2015-10-21



영광군에 시립 첫 국제 규격 인공암벽장

한뼘 한뼘 17m 오르면 나도 김자인



인공암벽 올라보려면 조성... 단말 관광

2015-1-15

시립에서 처음으로 인공암벽장 조성... 단말 관광

경험의 강조, 대표작은



라이터 3개 터지면 생산 중단

원장 행정 울산구 주택가-이태원 통 번화가 주차공간 확보 전방위 노력

노는 땅 찾고 담장 허무니 주차전쟁 NO!

“담을 허물면 이태원통 안쪽엔 도시오래비도 담밭과 주민들이 갈사라 다녔다.”
11월 울산구 현남부의 주택에 세워 둔 차를 두고 있던 이숙자(주) 이씨는 ‘담장들 풀었다. 차들 두 대!’를 수 있는 마당 주차장이 생겼다면 시가 몇 백만 원을 찾는 아파트도 차를 주차할 공간이 생긴다. 차가 들어 올 수 없다고 말했다. 후세대를 위한 TV와 컴퓨터 등 주차장 조성 공사 비용은 1년에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담장 허물면 노는 땅이 생기고, 담장 허물면 노는 땅이 생기고, 담장 허물면 노는 땅이 생긴다. 담장 허물면 노는 땅이 생긴다. 담장 허물면 노는 땅이 생긴다.”

1년에 조성비 800만원 가량
적당히 717년 조성 '담장'
주민들만 과용유지 활용도
한남동에는 0층 공영주차장

구는 주택가로 변모가 될 경우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주택가 조성의 한계는 주택가-이태원 통 번화가 주차공간 확보 전방위 노력이다. 주택가-이태원 통 번화가 주차공간 확보 전방위 노력이다. 주택가-이태원 통 번화가 주차공간 확보 전방위 노력이다.

주택가-이태원 통 번화가 주차공간 확보 전방위 노력이다. 주택가-이태원 통 번화가 주차공간 확보 전방위 노력이다. 주택가-이태원 통 번화가 주차공간 확보 전방위 노력이다.

11월 14일(목) 울산구 현남부 주택가-이태원 통 번화가 주차공간 확보 전방위 노력이다. 11월 14일(목) 울산구 현남부 주택가-이태원 통 번화가 주차공간 확보 전방위 노력이다.

보도자료 조심하기

하지만, 조심하세요

서울 안전지킴이 앱서비스 (2013.11 석간)

경찰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성급하게 홍보

서울시는 시민이 납치나 폭력 등 위험상황 처했을때 스마트폰 흔들면 경찰에 자동으로 구조요청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며 보도자료를 발표(2013.1.12)했지만 실제 경찰청과 업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첫날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흔들어도 경찰에 신고 접수도 안되고, 신속한 현장 대응도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방송사에 '서울시 자동 구조요청 앱 '먹통'...'졸속 행정' 비난' 이라고 보도가 되었다. 경찰청과의 업무협조를 전제로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했지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홍보를 하려하다가 역효과만 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통계의 두 얼굴



위에서 기사 빼달라합니다?

항의가 사실이고 기사가 거짓일 때
 이해관계자 중 일방적으로 편을 들었을 때
 취재 시 모르던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

'세금탈루' 효성 추징금 4800억

국세청 세무조사 중 최대액

탈세 혐의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받은 효성그룹과 조식래(78)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480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최수환 세무조사를 통해 효성그룹 및 총수 일가의 분식회계, 차명거래 등을 통한 대규모 탈세 혐의를 확인했다.

기사가 잘못됐다면

기사수정 요청

해명자료, 설명자료 발송

중재위 고발

마지막 수단 소송



정보만 통제하면 문제 없다?

“전화하지 말라”는 외교부 대변인?

강경화 장관 일정 물어보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까?”

기자들 “이런 대변인 처음 봐”

외교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대변인을 향한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나 문자에 답을 주지 않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떻게 언월이 돼 질문이라도 할라치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사례도

생겼다. 외교부에 출입하는 A 기자는 “강경화 장관의 일정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대변인에게 전화했더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나 장관이 점심때 뭘 먹었는 지까지 물어보지 그러냐’고 짜증을 내더라”며 “일마 전엔 대변인과 기자가 연성을 높이며 다룬 일도 있다. 최근 사건들 때문에 외교부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대변인의 기자들이랄 착까지 질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사의 B 기자

역시 “한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전화를 너무 안 받고 문자를 남겨도 볼 배운 안 해준다. 심지어 전화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끊은 적도 있다”며 “이런 대변인은 처음 본다. 외교부가 안밖으로 흔들리는 상황이라 대변인의 역할도 중요하데 위기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수베트남 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몽골 대사의 갑질 의혹 등 외교부의 기강 해이에 대해 여러 말들이 나오는 상

황에서 대변인의 이런 행태에 출입기자들은 고개를 갇웃거리고 있다. 기자들과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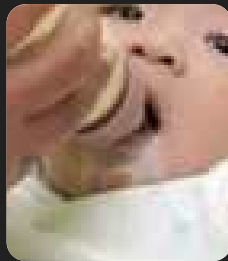
외교부 담당 C 기자는 “기밀 유출 사건 이후 외교부 사람들이 기자들과의 만남을 꺼리고 있다”면서 “대변인마저 기본적인 확인도 안 해주니 기자로서 너무 답답하다. 기자들과 대변인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건 상당수가 인지하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기자협회보는 외교부 대변인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3~4일 이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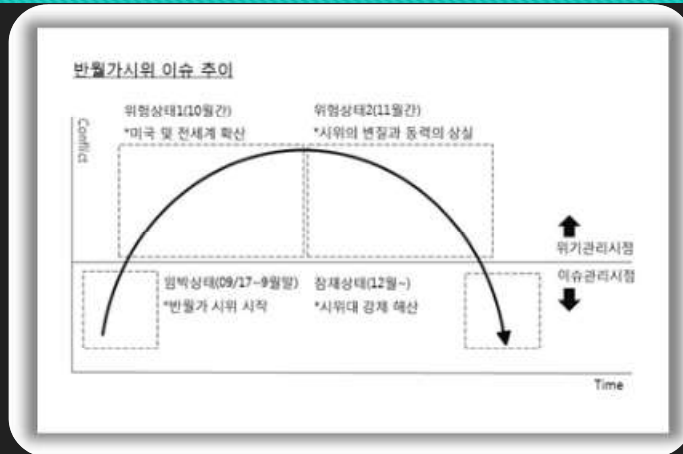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위기관리

위기 컨설턴트를 하라고?



이슈도 생명이 있습니다



언론의 지적에 어떻게 반응할까

전략	종류	예시	비고
부정	단순부정	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	
	비난전환	다른 사람이 그 행위를 하였다.	
책임회피	도발	나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다	
	불가피성	나의 행위는 정보의 부족 혹은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사고	나의 행위는 불가피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좋은의도	그 행위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사건의 피해를 줄임	강화	행위(자)의 (기존의) 좋은 점을 강조	
	최소화	행위의 결과가 심각하지 않음.	
	차별화	다른 유사 사건보다 피해가 적음.	
	초월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한 행위임.	
	공격자들 공격	공격자의 신뢰도를 줄임	
	보상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음.	
교정행위	행위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함. 재발방지 노력.	책임인정은 부인	
사죄	사과를 함.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뒤따름.	책임을 모두 인정	

OFF는 지켜지나요?



강효상 의원과 K외교관의
오프더레코드



신정아씨의 18번은
찰랑찰랑입니다

왜 OFF를 걸지?



모두 다 지나간다?

신라호텔 뷔페식당 '한복 출입금지' 논란

경향신문 일문 | 기사전송 2011-04-13 10:58 최종수정 2011-04-15 14:52

관심지수 62 | +기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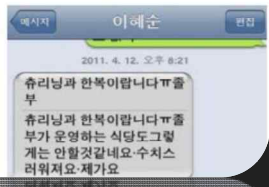
신라호텔이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님의 출입을 막았다는 주장이 인터넷과 트위터상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한복이 거부당하더니 말이 안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트위터 사용자들에 따르면 12일 저녁 6시30분 영화 의상 제작으로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 이혜순씨는 저녁약속이 있어 신라호텔의 한 뷔페레스토랑을 찾았다.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그는 황당할 경험을 했다. 식당입구에 도착해 예약자명을 말하니 직원들은 뭔가 미적거리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더니 한 직원은 "우리 호텔엔 드레스 코드가 있다. 한복은 출입이 안된다"고 전했다. 이씨는 "한복을 알고 싶다"는 의도로 20년째 매일 한복을 입고 다녔다.

황당한 이씨는 한복 출입이 왜 안되는지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식당의 당직 지배인은 "한복은 위험한 옷이기 때문"이라며 "부피감이 있어 다른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씨는 "지금까지 국내외의 많은 식당을 다녔지만 한복이 위험한 옷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말했다. 하지만 지배인은 "그게든 우리 호텔이 그렇"



홍보 혼자 못해요



감사합니다

2025 경기도 공공언어개선사업
찾아가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

쉽게, 바르게, 품격 있게!
보도자료 용어 다듬기

김선영(국립국어원)

독자 중심으로
작성

보도 자료 이해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

넓은 대상은
대한민국 일반 국민,
좁은 대상은 시민, 도민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를 평가하는 기준
(중앙기관 대상)

참고

1 보도자료의 구성

1.1. 보도자료란?

1. 보도자료의 성격

보도자료는 신문이나 뉴스 등의 언론 매체에 보도할 목적으로 정부 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에서 언론 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이다. 보도가 목적이므로 언론 기관의 기자를 1차 수신자로 한다. 하지만 최근 보도자료는 공공 기관의 누리집에 직접 공개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도 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도자료는 기자와 국민이 모두 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한다.

2. 보도자료의 언어 표현

보도자료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 등의 공공 기관에서 발행하므로 보도자료에 사용되는 언어는 공공언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도자료의 언어 표현은 공공언어의 요건인 '표기의 정확성', '표현의 정확성',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

3. 보도자료의 형식

보도자료는 그 형식적 측면에서도 공공언어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정보성'과 '용이성'에 신경을 써서 독자들이 보도자료의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보도자료의 언어 표현 측면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자료의 형식 측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 보도자료의 구성 요소

1. 보도자료의 핵심 구성 요소

보도자료 정보

- 기관 정보: 기관 이름, 기관 상징, 표어 등
- 일시 정보: 보도 일시, 배포 일시
- 작성자 정보: 담당 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등

내용 정보

- 제목: 표제 및 부제
- 주제문(리드문)
- 본문

부가 정보

- 붙임 자료
- 공공누리 등

데이터 친화형 보도 자료

-중앙기관에서 지자체로 점차 사용을 확대

① 기본 방향	② 사용 규칙
<p>데이터 활용도 제고 : 개방형 포맷 기반의 표준 양식(hwp) 마련</p> <p>표준화를 통한 가독성 제고 : 온라인 중심의 변화된 이용 환경에 맞게 보도자료 양식 표준화</p>	<p>문서 형식 : 아래아한글 개방형 형식(hwp) 활용</p> <p>언어 형식 : 어문규정에 맞춰 한글로 알기 쉽게 작성</p> <p>기술 형식 : 본문 내용은 서술형으로 작성하고, 문단 앞 특수문자는 사용 자제</p>

출처: 국립국어원

② 사용 규칙 세부 내용	
문서 형식	- 유형: '기본 양식', '기본 양식 이외 양식*' * 담당 부서 및 담당자가 다수인 경우 활용 - 구성 요소: 기본정보, 본문정보, 부가정보 → 관련 표 임의 변경 불가
언어 형식	- 원칙: ① 한글 외 다른 문자 사용 금지*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다른 문자 병기 가능 (예) 케이티엑스/케이티엑스(KTX) ② 외래어 등은 쉬운 말로 바꿔 쓰기 ③ 국어 문법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 사용하기
기술 형식	- 제목, 부제목, 요약문 이외의 본문 내용은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서술형으로 작성함. - 문단 앞 특수 문자(□, ○ 등)는 사용하지 않음.

문자표에서 유니코드 문자표 활용
글꼴 TTF글꼴 사용(HFT는 사용X)

보도 자료 작성 지침

① 보도자료 개요

정책이 국민을 만나는 첫 인사이자, **홍보의 제1수단인 “보도자료”**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보도자료 수요자 확대**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개요 파악
- 정책의 기사화 여부 및 시점 판단

(일반 국민)

- 기사화 여부와 관계없이 부처 누리집 등에서 보도자료를 읽고 정책 및 현안 이해

② 작성 시 고려 사항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보도자료 첫 장**”에!

목적

보도자료는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한 보도가 목적임.

뉴스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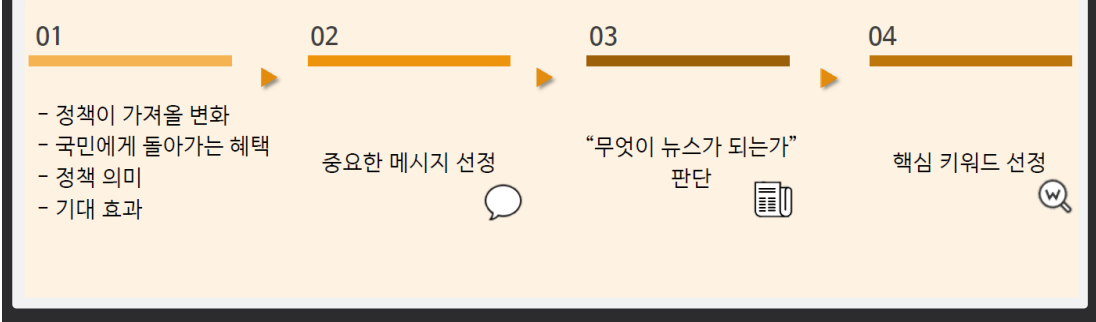
- 새로운 사실
- 현재 시점에서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 등

작성 방법

- 정책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할 법한 내용을 설명함.
- 본문 1~2장 정도로 압축하여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함.
- 정책 흐름의 이해를 위해 정부의 전체적인 국정기조나 국정과제의 큰 틀에서의 개별 정책의 위치를 설명함.
- 핵심 메시지를 담은 제목 → 제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주제문 → 중요 우선순위에 따른 본문 배열

③ 작성 요령: 핵심 메시지 및 핵심 키워드 선정

가장 강조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3개 이내”로 선정!



③ 작성 요령: 제목 및 부제목

“근중도 가족입니다”
- 축산법 개정 (2019년 7월), 근중 14종 가족에 포함 -

- 제목: 법 개정으로 변화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담음.
- 부제목: 법 개정의 주요 정보를 잘 담음.

**5G 세계 최초 사용화, 바이오·수소경제 선도,
4차산업 혁명 대응 인재 4만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업무보고 -

- ‘5G, 4만명, 세계 최초’ 등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해 한 해의 전망을 제시함.

제목의 기능

- 제목은 본문의 요약이 아님.
- 제목은 가장 홍보해야 할 내용을 눈에 띄게 내놓는 것임.

제목의 구성

- 제목: 핵심 메시지 중 가장 앞세워야 할 것(1줄)
- 부제목: 나머지 주요 정보(1~3줄)

작성 시 고려 사항

- 제목과 부제목의 단어는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게!
- 정책명·숫자 등을 적시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출처: 국립국어원

국립민속박물관, 생활사 자료 기반 온라인 콘텐츠
<내 추억에 놀러와>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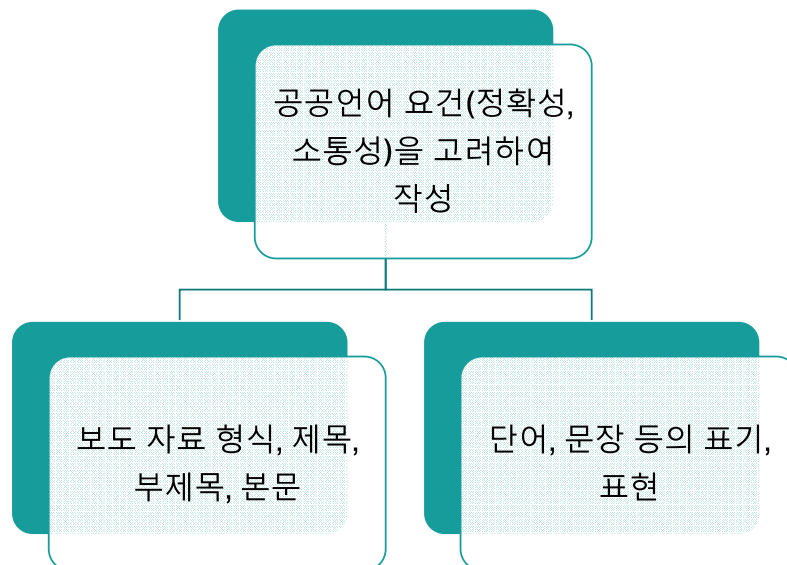
- 물건에 얽힌 나만의 추억을 배달해 드립니다 -

물건에 얽힌 나만의 추억을 배달해 드립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생활사 자료 <내 추억에 놀러와> 온라인 콘텐츠 공개-

보도 자료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



-국립국어원 제시




공공언어 요건 정확성, 소통성

공공언어의 요건과 보도자료의 측면			
정확성	1 표기의 정확성	①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②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였는가? ③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였는가?	보도자료의 언어 표현적 측면
	2 표현의 정확성	④ 어휘를 적절하게 선택하였는가? ⑤ 문장을 문법에 맞게 표현하였는가? ⑥ 단락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하였는가?	
소통성	3 공공성	①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②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③ 차별적 표현(성, 지역, 인종, 장애 등)을 삼갔는가?	보도자료의 형식적 측면
	4 정보성	④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제시하였는가? ⑤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⑥ 정보의 배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5 용이성	⑦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⑧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⑨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국립국어원 제시 보도 자료 예

보도 자료 정보	△△원 보도 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담당 부서	○○과	책임자	과장 신○○(00-000-0000)
		담당자	학예연구사 김○○(00-000-0000)
내용 정보	한복 입고, 만드는 오감 만족 한복 문화의 장 - 2018 한복 겨울 상점 개최 -		
	<p>□ △△원은 ○○센터와 함께 1월 19일(금)부터 22일(월)까지 나흘간 문화역서울 284에서 '2018 한복 겨울 상점'을 개최한다.</p> <p>□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한복 브랜드들이 운영하는 소형 판매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옷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p> <p>□ 또한 한복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특별 행사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도 마련된다.</p> <p>○ 개막일 특별 행사로는 '한복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친선 교실'이 운영된다. 친선 교실은 1월 19일(금) 낮 12시 '한복학당'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센터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abcd)에서 받는다.</p> <p>□ △△원장은 "이번 행사가 기존 한복 업계의 종사자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확대 하는 기회가 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한복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므로써 한복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p>		
부가 정보	불임 행사 개요 및 행사장 배치도 		

경기도청 보도 자료 예



보도자료



보도일시		사진	o	자료	x	매수	1
담당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						

경기도 뉴스포털 사이트, 이제 모든 기기에서 편하게 본다

- 반응형 누리집 개편으로 PC·모바일 자동 최적화 ... 도민 접근성·편의성 개선
- 메인화면 대폭 개선 ... 기사 제목·이미지 매칭으로 가독성 높여

경기도가 도 소식을 전하는 대표 종합정보 플랫폼 '경기도 뉴스포털'을 22일 반응형 누리집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기존 PC용과 모바일용으로 나뉘어 있던 '적응형' 구조에서 모든 디지털 기기에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구조로 개편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어떤 기기로 접속하더라도 화면 크기에 맞춰 자동 조절되는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됐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UI/UX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성도 한층 높아졌다.

메인화면 구성도 대폭 개선했다. 주요 기사의 제목과 이미지를 함께 매칭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새로 선보인 '오늘, 경기도' 코너에서는 도민이 관심있을 만한 정보를 큐레이션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문화행사, 공모전, 여론조사 등 콘텐츠 영역도 찾기 쉽게 재배치했으며, 통합 URL 체계도 새롭게 구축했다.

이경훈 경기도 도민소통담당관은 "이번 개편은 도민과 경기도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더 나은 디지털 소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된 경기도 뉴스포털은 누리집(gnews.gg.go.kr)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기본 정보


**제목
부제목**

요약문

본문



보도자료



보도일시		사진	x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						

경기도의 유리천장 깨기 노력 통했다

경기도·도 산하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모두 30% 넘어

민선8기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공약 1년 조기 달성 기록

○ 6월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35.1% 기록

- 민선 8기 경기도 공약(도 여성관리자 30%, 공공기관 35% 확대) 1년 조기 달성
- 경기도 여성관리자 비율 30% 확대는 2024년 말 이미 달성

○ 경기도 여성관리자 비율은 2021년 말 23.9%에서 계속 상향 추세

- 민선 8기 임기 1년 차인 2022년 27.1%, 2023년 28.5%에서 2024년 30.5%로 첫 30% 돌파 기록
- 경기도 첫 여성 비서실장 임명 등 역량 중심 인사정책 결과 평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이 35.1%가 넘으면서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했던 유리천장 깨기 노력을 성과를 거뒀다.

24일 도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경기도청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31.5%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35.1%로, 공약 목표(각각 30%, 35%)를 초과 달성했다.

이에 대해 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 중심 인사를 추진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선8기 동안 경기도청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민선8기 임기 1년 차인 2022년 27.1%를 기록한 후, 2023년 28.5%, 2024년 30.5%로 매년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말 23.9%였던 여성 관리직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민선8기 공약은 2024년 말 달성했다.

변화는 승진자 비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1월 실시한 2025년 상반기 5급 승진 인사 53명 가운데 20명이 여성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여성 비율이 36.8%에서 37.7%로 0.9%p 증가했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역시 2022년 34%에서 2023년 34.3%, 2024년 34.5%로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올해 처음 35%를 넘어섰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관리자 비율 83.3%에 달하며, 경기도의료원(67.2%), 경기복지재단(62.5%), 경기도일자리재단(56.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6월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 임명되고, 2023년 처음으로 공개 모집한 보건환경연구원장직에 여성 원장이 발탁되는 등 조직 전반에서 여성 관리자 진출이 확대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제40회 경기여성대회'에서 "임기 시작하고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며 "여성을 특별히 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별 관계없는 역량 중심 인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연습] 요약문을 보고 제목과 주제문을 작성해 보세요.

- 도,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서 겨울방학 캠프 운영. 25일부터 총 800명 선착순 모집
-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주간 진행

경기도, ‘다놀자 방학캠프’ 참가자 모집... 25일부터 접수 시작

- 도,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서 겨울방학 캠프 운영. 25일부터 총 800명 선착순 모집
-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주간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서 겨울방학 돌봄 프로그램 ‘다놀자 방학캠프’ 참가자 800명을 모집한다.

보도 자료 감수 사례_정확성

표기

어문규범 관련: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문장부호

「국어기본법」공문서
작성 관련: 한글 우선
표기

표현

문맥에 맞는 단어 사용

어법에 맞는 문장

단락 연결

우리v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범위를 넓힌다.

‘인공지능(AI)’ 기반

시도가 각 1인의

애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구입v시에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범위를 넓힌다.

우리~~v~~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범위를 넓힌다.

‘AI’ 기반

‘~~인공지능~~(AI) 기반

시·도가 각 1인의

~~시·도~~가 각 1인의

어플리케이션’ 구입시에

~~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 구입~~v~~시에

또한 「식품위생 및 보충 식품의 관리법」과 유아 편식 예방 식습관 지도 등을 안내하고 보충 식품을 활용한 간식, 이유식 만들기와 같은 조리 시연

스마트도서관에는 약 500여 권의 장서를 갖추어 두었다. 또한 마포구는 쾌적한 도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도서관에 책 소독기를 설치했다.

표현

‘약’과 ‘·여’는 중복 표현입니다.

[연습] 수정해 봅시다

7.16~20일 호우 대처 상황보고_20일 16시 기준

7.16~20일 호우 대처 상황보고_20일 16시 기준

경기도, 도로 노후화 시로 분석. 도로파임·균열 미리 대응

- 도로포장상태 조사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 체계 마련 활용
- 2017년부터 경기도 지방도 등의 조사 자료 확보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
- 집약된 경기도의 PMS 분석 기술 31개 시군과 기술 전수 공유

보도 자료 감수 사례_소통성

단어: 순화어, 쉬운
단어

문장: 자연스러운
문장, 번역 투
문장, 문장 길이 등

형식: 제목, 부제목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기반을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지난해 우리동네 환경보안관으로 활동한 어르신들은 각 동 전담 지역에서 정기적인 무단 투기 순찰을 진행했다. 우기에는 빗물받이와 배수로를 정비해 여름철 강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몫을 했다.

2024년에 지난해 '우리v동네 환경보안관'으로 활동한 어르신들은 각 동 전담 지역에서 정기적인 무단 투기 순찰을 진행했다. 우기에는 빗물받이와 배수로를 정비해 여름철 강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몫을 했다.

명확한 표현

'지난해'보다는 연도를 쓰면 더 명확한 표현이 됩니다.

규제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필름식 번호판 제작상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구청에서 발부한 원상복구명령서 지참 후, 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고 이후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었다.

규제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필름식 번호판의 제작상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할 때면 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구청에서 발부한 원상복구명령서를 지참한 후에, 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고 이후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었다.

이번에 00시가 발굴한 안들은 철폐시 시민과 기업이 즉각적으로 체감 가능한 것이 대부분으로 더 편리한 시민 생활과 더 활발한 기업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00시가 발굴한 규제안들은 철폐시 시민과 기업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으로 이로써~~ 더 편리한 시민 생활과 더 활발한 기업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고 있다.~~

고양시가 또 찾아내 완화하고 없앤다.

고양특례시(이하, '고양시'라 함)가 또 찾아내 완화하고 없앤다.

기관명 줄임 표기

기관명을 줄여서 쓸 때는 처음에 줄임 표시를 한 후에 이후 줄여서 씁니다.

00000(이하, '00'라 함)

[연습] 공공언어에 맞게 수정해 보세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MZ세대 인생 첫
부동산 바로 알기 교육'
12월까지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원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학생, 공공기관 직장인, 공직자 등 MZ(엠지) 세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00 구 햇빛센터, 엄마와 아이에게 영양은 더하고 걱정은 덜고

- 영양 위험 요인 가진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보충 식품 지원해 건강 문제 해결

00 구 햇빛센터, 엄마와 아이에게 영양은 더하고 걱정은 덜고

- 영양 위험 요인 가진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
-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보충 식품 지원해 건강 문제 해결 -

보도 자료 제목, 부제목

부제목은 양쪽에 ‘:’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한 쪽에만 ‘:’를 붙이면 제목이 아니라 소항목의 의미가 됩니다

경기도는 인공지능(AI)으로 도로 포장상태를 분석하는 '경기도 도로 포장관리시스템(GR-PMS)'을 구축해 '도로파임(포트홀)'이나 균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도로 포장관리시스템(GR-PMS)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기존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앞서 도는 2017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도입했다. PMS는 도로 포장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의 포장계획, 설계, 시공, 평가, 유지관리, 재시공 등 전 단계를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이 시스템에 AI를 접목, 2020년 AI 분석을 시작해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했으며 2023년부터 AI 고도화를 진행해 이번에 경기도 도로 포장관리시스템(GR-PMS) 구축을 완료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재 경기도 지방도는 대부분 개설된 지 30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무엇보다 선제적 예측과 적시적소의 보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구축된 GR-PMS 조사 분석 기반을 통해 경기도 도로 포장 유지 관리의 선제적 대응에 앞장서고 31개 시군 기술 공유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병 본부장은 “‘경기119마음건강센터’는 단순한 상담 공간이 아니라, 심리 회복을 제도 속으로 안착시키는 출발점”이라며 “현장 대응 이후의 회복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소방 가족들의 삶을 더욱 단단히 지켜가겠다”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투표는 시민과 함께 생활 속 주소 체계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과정”이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산책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정아 공공위원장은 “폭염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가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산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 (031-538-4319)

이재준 시장은 “청년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뿐 아니라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ravo! 중장년 릴레이 채용의 날’ 주간에는 생산직, 물류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종 관련 직원채용에 나선 구인기업 10개사와 구직자 100여 명이 참여해 기업별로 2주간 현장면접을 이어가게 된다.

현장면접은 구직기업에 따라 상설면접, 동행면접, 화상면접 등 여러 형태로 이뤄지고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된다. 단, 면접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031-8075-3665)로 사전접수 해야 한다.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주관부서	담당팀장	연락처	사진유무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이진희	8075-3231	있음
	운영관리TF팀장	윤상건	8075-8511	
	자금결정TF팀장	양수욱	8075-8521	

고양시, 민생회복소비쿠폰 전달조직(TF) 가동...시민불편 최소화 총력

- 1차 신청, 전국민의 대상...신청 첫 주에만(7.21.-25.) 요일제 적용
- '민생회복소비쿠폰' 안내 사칭 스미싱 문자에 각별한 주의 당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원활한 신청·지급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달조직(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인당 15~50만원까지 1·2차에 나눠 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급 초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시청과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인력과 창구를 배치하고, 온·오프라인 신청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거동 불편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를 적용해 시스템 안정화와 현장혼잡에 대응하고, 민원콜센터 안내를 통해 원활한 지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6일부터 요일제는 해제되고, 출생년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 경기도지역화폐 누리집·앱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2025년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시는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나 앱, 오프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소비쿠폰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URL) 링크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촉박한 일정이지만 각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1. 고양시청 전경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보도자료

수원시,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 기념식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수원시에서 입주 청년 모집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보도일시		담당부서	
관련자료		담당팀장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사진1)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2번째),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염태영 의원, LH 이한준 사장이 입주기념식에서 함께하고 있다.

사진2)이재준 시장(오른쪽 6번째)과 참석자들이 입주기념식에서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와 LH가 10일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기념식을 열었다.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수원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새빛 청년존(Zone) 2호는 권선구 정조로388번길 7-10에 조성했다. 지하 2층·지상 13층 전체면적 1만 1175.37㎡ 규모로 세류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주택(오피스텔) 163호가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은 23~28㎡다.

새빛 청년존(Zone)에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입주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2호에 입주 청년을 모집했고, 536명이 신청했다.

모집 인원의 70%(114명)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49명)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했다. 수원시는 취·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등 수원 청년들에게 우선입주 기회를 제공했다. 8개 청년기업도 입주했다.

이날 입주기념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염태영(수원무) 의원, 수원시의회 의원, LH 이한준 사장, 권운혁 경기남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청년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뿐 아니라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빛 청년존 임대 기간은 2년이고, 4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임대비용은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25만 3300원~27만 3350원)이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시중 시세 50%(30만 8860원~33만 3820원)이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15개소에 ‘도서 대출·반납 전용 30분 주차 공간’ 설치

도서관 입구 인근에 1~2면씩 주차 공간 조성, 최대 30분까지 무료 이용 가능

수원시, 공공도서관 15곳에 ‘도서 대출·반납 전용 30분 주차 공간’ 설치
-도서관 입구 인근에 1~2면씩 주차 공간 조성, 최대 30분까지 무료 이용 가능-



잠깐 주차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수원시, 공공도서관 15곳에 ‘도서 대출·반납 전용 30분 주차 공간’ 설치-
-도서관 입구 인근 주차 공간 조성 무료 이용 가능-

수원시,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 기념식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수원시에서 입주 청년 모집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수원시,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 기념식
-청년임대주택 입주 청년 모집,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잘 쓴 예시

경기도, 미국 화장품 규제(MoCRA) 대응 위해 수출기업에 등록비 지원

경기도농업기술원, 폭염에 따른 과수 햇빛데임(일소) 주의 당부

"가치먹자" 경기도, 하반기 '1인가구 기회밥상' 참가자 모집

포천시 가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쿨(COOL)~하게 여름나기 물품 지원 사업' 실시

마무리

공공언어의 요건인 소통성, 정확성에
맞게 보도 자료를 작성합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자료
->기타 자료
검색하여
내려 받기

유형별로 알아보는 보도자료 작성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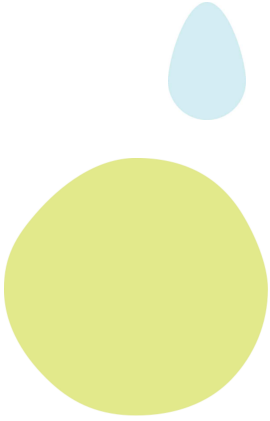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 <출처>

- 국립국어원 누리집
- 경기도청 누리집
- 고양시 누리집
- 수원시 누리집
- 용인시 누리집
-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 서울특별시 누리집
- 마포구청 누리집

감사합니다

ailen99@hanmail.net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국제문화대학 309-1호
- 전화번호: 031-400-4513
- 전자우편: hykorean@hanyang.ac.kr
- 누리집: <https://hkli.hanyang.ac.kr>